

UOS

UNIVERSITY OF SEOUL MAGAZINE
VOL. 11 2020



2021학년도 서울시립대 입학전형 안내

합격이 보인다
서울시립대
실기전형 준비 노하우

자기소개서 작성
DO & DON'T

유지취업률 높은 학과
BEST 6

CONTENTS

UNIVERSITY OF SEOUL MAGAZINE
VOL.11 / 2020

02

INFORMATION

2021학년도 서울시립대 입학전형 안내

10

TIPS

선배로부터 듣는 나의 성공시대

14

KNOW HOW

자기소개서 작성 DO & DON'T

18

INTERVIEW

시대가 원하는 면접의 기술

20

ADVICE

합격이 보인다
서울시립대 실기전형 준비 노하우

24

INSIDERS

대학은 나의 힘

28

PEOPLE

나의 꿈, 나의 시대

32

PUBLICITY

시대인의 모든 것, 우리가 알려줄게!

36

MAJOR

유지취업률 높은 학과 BEST 6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화학공학과/
기계정보공학과/신소재공학과/
토목공학과/컴퓨터과학부

44

PROGRAM

도전해봐! 네 꿈을 펼쳐봐!
서울시립대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46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캠퍼스 사계

50

TALK

서울시립대 '소문' 진실 혹은 거짓

52

맛STAGRAM

UOS #맛STAGRAM

54

CALENDAR

한눈에 보는
UOS 연간 프로그램

56

SNS

서울시립대학교에 놀러 와!



표지모델 배용욱(컴퓨터과학부 14)
이소윤(환경공학부 17)

이른 시간부터 시작한 촬영에도 배용욱, 이소윤 학생은 피곤한 기색 없이 시종일관 밝은 모습으로 촬영에 임했다. "학교를 대표하는 표지 모델로 나선 만큼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다"는 배용욱 학생의 적극적인 모습에 이소윤 학생이 맑게 웃으며 말했다. "서울시립대 학생들은 언제나 열정적이예요. 어디서든 당당한 시대인의 모습이 이 책을 통해 많이 알려지면 좋겠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시립대학교 UOS 매거진 제11호

발행일 2020년 2월 28일 발행처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처

주소 02504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입학처 전화 02-6490-6180~1 팩스 02-6490-6179

인쇄 (주)영화인쇄(031-957-4488) 기획·디자인 (주)모두커뮤니케이션즈 (02-6377-0518)

2021학년도 서울시립대 입학전형 안내

모집인원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최다 논술 모집인원 줄고 정시 늘어나

2022학년도로 예고된 대학입학제도 개편을 앞두고
2021학년도 입시 전형은 큰 변화 없이 종전의 기초를 유지한다.
서울시립대는 2021학년도 입학전형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각각 64.6%(1172명), 35.4%(641명)로 주요대학 중 정시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논술전형에서 41명이 줄어들면서 이에 따른 모집단위별 인원 변동이 변수다.
2021학년도 서울시립대 입학 전형,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유심히 살펴보자.



수시모집

논술전형 모집인원 축소, 전형방법도 바뀌

수능최저학력기준 일부 변화

총 1172명을 선발하는 2021학년도 서울시립대 수시전형은 비교적 큰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지만 모집단위별로 들여다보면 눈여겨볼 만한 변화가 있다. 이미 전년도에 9명 축소됐던 논술전형이지만 2021학년도에 또다시 큰 폭의 인원 변동이 생기면서 논술전형으로 신입생을 아예 선발하지 않는 전공학과가 발생했다. 전형별 선발인원을 살펴보면 학생부종합전형은 737명, 학생부교과전형은 295명, 실기전형은 39명, 논술전형은 41명이 줄어든 101명이다.

학생부종합전형

2021학년도 서울시립대 학생부종합전형은 총 737명을 선발하며 세부 전형별로는 **학생부종합전형이 563명, 고른기회전형 142명, 사회공헌·통합전형은 32명**을 모집한다. 전 유형이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서류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며 1단계에서 4배수를 먼저 선발하는 사회공헌·통합전형 외에는 모두 1단계에서는 모집인원에 따라 2~4배수를 면접평가 대상으로 선발 후 2단계에서 서류평가 50%, 면접평가 50% 비율로 합격생을 가려낸다. **학생부종합전형 3가지 유형 모두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학생부교과전형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으로만 평가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은 총 295명을 선발한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은 전 학년 전 교과 원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반영해 평가하며 반영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또 **학생부교과전형에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가/나형), 영어, 사회/과학탐구(상위 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7 이내,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가형, 영어, 과학탐구(상위 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의 합 8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학생부교과 실기전형으로 치러지는 산업디자인학과는 총 3단계에 걸쳐 공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 전공 신입생을 선발한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단계별 선발배수의 변경과 인원 확대가 눈에 띈다. 1단계 10배수 학생부교과 100%, 2단계 3배수 학생부교과 50%와 실기고사 50%를 반영하며, 3단계에서는 학생부교과 35%, 실기고사 35%, 지원자의 표현 의도 등을 질의하는 면접 30%를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논술전형

서울시립대 2021학년도 논술전형 모집인원은 101명.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2021학년도 서울시립대 입학전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논술전형의 인원 축소와 전형방법의 변화다. 특히 기존 단계별 전형에서 일괄전형으로 바뀐 것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2021학년도 부터는 논술 100%로 4배수를 선발하는 1단계 전형을 폐지하고 논술 60%, 교과 40%의 반영비율을 일괄 적용한다. 교과성적 반영방식도 기존의 전 학년 전 교과의 원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 반영에서 전 학년 전 교과의 등급 반영으로 바뀌며 등급이 없는 과목은 반영하지 않는다.

인문계열 논술은 총 3개 문항으로 국어와 사회, 통합교과형 제시문을 출제해 다양한 논술 능력을 평가한다. 자연계열은 수학 문항으로만 구성된 수리 논술 4~5문항이 출제된다. 문항 특성에 따라 풀이과정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도 있지만 서술 능력뿐 아니라 정확한 계산 능력이 중요한 채점 기준이 되는 문항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실기전형 및 정원의특별전형

먼저 음악학과는 학생부교과 10%와 실기고사 90%의 반영비율로 실기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교과성적 반영방법은 전 학년 전 교과의 등급을 반영하며 등급이 없는 과목은 제외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 정원의특별전형으로 102명을 선발한다. 세부 모집인원을 보면 농어촌학생 34명, 특성학교교졸업자 25명, 기초생활수급자 33명, 장애인 등 대상자 10명이다. 학생부교과 100%를 반영해 평가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가/나형), 영어, 사회/과학(상위 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합이 7이내,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가형, 영어, 과학(상위 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8이내여야 한다. 단, 특성학교교졸업자특별전형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탐구영역에서 직업 과목을 포함해 상위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수시전형별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유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모집인원
논술	논술전형	학생부교과 40%+논술 60%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 100%
	정원의특별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있음
	실기전형(산업디자인학과)	1단계(10배수): 학생부교과 100% 2단계(3배수): 학생부교과 50%+ 실기고사 50% 3단계: 학생부교과 35%+실기고사 35%+면접고사 30%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전형	1단계(2~4배수 선발): 서류평가 100%
	고른기회전형	2단계: 서류평가 50%, 면접평가 50%
	사회공헌·통합전형	1단계(4배수 선발): 서류평가 100% 2단계: 서류평가 50%+면접평가 50%
실기	실기전형(음악학과)	학생부교과 10%+실기 90%

정시모집

모집인원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

음악학과 전형방법 및 스포츠과학과 실기고사 과목 변경

2021학년도 서울시립대 정시모집은 가군 605명, 나군 36명으로 총 641명을 선발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6명 늘어난 인원이다. 이 중 산업디자인학과와 경우 수시모집 미충원인원 발생 시 이월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지원자격과 전형방법은 동일하며 음악학과와 스포츠과학과에서 일부 변화가 있다. 스포츠과학과, 음악학과, 환경조각학과, 산업디자인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수능 100%를 반영하고, 한국사 등급별 점수는 전 모집단위에서 5등급부터 총점에서 2점씩 감점한다. 한편 2021학년도부터 융합공학부의 경우 수시모집에서 미충원 시 정시모집에서 인원을 선발하는데 인문계열 모집단위는 인문계열 I, 자연계열 모집단위는 자연계열 수능 반영방법을 따른다.

인문계열은 국어 30%, 수학(가/나형) 30%, 영어 25%, 사회/과학 15% 비율로 성적을 반영해 평가한다. 단 경제학부와 세무학과, 경영학부의 경우는 수학(가/나형)을 35%, 사회/과학을 10% 비율로 반영해 차이가 있다. 반영하는 점수는 과목별로 다르다. 국어와 수학은 표준점수를 반영하고 탐구영역은 백분위점수를 활용한 서울시립대 자체 변환점수를 적용한다. 영어는 등급 점수를 반영하는데 1등급은 만점을 부여하며 2등급부터 4점씩 감점한다. 인문계열에서는 탐구영역 반영 시 제2외국어 또는 한문영역을 1개 과목으로 인정한다.

인문계열



자연계열

2021학년도 서울시립대 정시모집 자연계열은 수능성적을 국어 20%, 수학 가형 30%, 영어 20%, 과학 30% 비율로 반영한다. 국어와 수학은 표준점수를 반영하고, 영어영역은 등급 점수를 반영하는 것은 인문계열과 동일하다. 단 영어영역 등급 점수에서 자연계열은 2등급부터 2점씩 감점된다. 탐구영역은 백분위점수를 활용한 서울시립대 자체 변환점수를 적용한다.

산업디자인학과
스포츠과학과

예체능계열의 경우 전반적인 전형방법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스포츠과학과 실기 고사 과목이 변경됐다. 전년도에는 실기 고사 유연성 종목에서 체전굴을 실시했으나 2021학년도에는 좌전굴이 채택됐다. 그 밖에 제자리 멀리뛰기와 100m달리기는 종전과 동일하다. 1단계 수능 100%로 4배수를 뽑고 2단계 수능 50%, 학생부교과 및 출결 20%, 실기 30%를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산업디자인학과와 의 경우 1단계에서 수능 100%를 반영해 10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수능 60%와 학생부교과 및 출결 20%, 실기 20%를 반영해 평가한다. 실기고사에서는 기초디자인 종목에서 별도 주제를 부여해 평가를 진행한다.



음악학과
환경조각학과

음악학과는 전형방법에서 변화가 있다. 수능 30%, 학생부교과 및 출결 10%, 실기 60%로 변경되어 수능 반영비율이 다소 높아졌다. 실기고사 과목은 작곡 전공의 경우 화성학, 작곡, 피아노 테스트로 실기평가를 치른다. 성악 전공은 이태리곡과 독일곡을 모두 평가하며 피아노 전공은 지정곡과 자유곡 각각 1곡씩, 관현악은 자유곡 1곡을 연주한다. 환경조각학과는 지난해와 변동 없이 1단계에서 수능 100%로 4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수능 30%, 학생부교과 및 출결 20%, 실기 50%를 반영해 응시자들의 당락을 결정한다. 실기고사는 소조와 소묘 2과목으로 치러진다. 학생부교과는 전 학년 국어, 영어 전 과목의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를 동일하게 반영한다. 교과 및 비교과 점수 반영 비율은 교과성적 90%, 비교과성적(출결) 10%다. 두 전공 모두 수능은 국어 50%, 영어 50%를 반영한다. 영어 등급별 점수 반영은 1등급에 만점을 부여하고 2등급부터 4점씩 감점한다.

정원 외 특별전형
(북한이탈주민)

정원 외 전형인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은 서류전형 50%, 면접구술 50%를 반영해 선발한다. 반드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모집단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지정 영역에 응시해야만 한다.

정시 전형별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모집군	전형방법		수능영역별 반영비율						모집인원	
	모집단위	수능 (%)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영역		
				가	나			사회		과학
가	인문계열 I	100%	30%	30%		25%	등급별 부여점수	15%		117명
	인문계열 II (경제학부, 세무학과, 경영학부)		30%	35%		25%		10%		114명
	자연계열		20%	30%	-	20%		-	30%	289명
	예체능계열		각 학과별로 영역별 전형요소 반영							
나	도시행정학과	100%	30%	30%		25%	등급별 점수 부여	15%		13명
	자유전공학부			30%				15%		23명
	융합전공학부(인문)			30%				15%		수시미충원시 이월선발
	융합전공학부(자연)			20%	30%			-	20%	-

선배로부터 듣는 나의 성공시대

2021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인원은 다소 증가하였다.
먼저 경험한 선배들이 귀뜸해주는 합격의 기술, 시대로 가는 길.

학생부종합전형 인문계열

인재상에 맞춰 성장시켜온 자신을 보여주세요

홍찬빈(국제관계학과 19)



Q | 여러 수시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을 택한 자신만의 기준이나 목표가 있었나요?

A | 학생부종합전형은 의미 그대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과성적에 강점이 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비교과가 엄청나게 뛰어난 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공과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비교적 많다고 생각했고, 교과성적을 점수화하여 보지 않는다는 점이 저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면접이 있는 전형에서는 1차에서 뒤쳐졌던 점수를 역전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철저히 준비했구요.

Q |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활동들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A | 저는 1학년 때부터 '공공외교 전문가'를 꿈꾸며 민간, 문화 측면의 소프트 파워 외교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특정 학과 진학을 목표로 활동한 것은 아니고요. 학창시절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희망 학과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내 유기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런 활동 속에 구체적인 진로 계획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했구요.

Q | 주로 어떤 활동들이었는지 궁금해요.

A | 전공과 관련된 많은 발표, 독서 등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크게 '학생회 활동, 글쓰기 & 토론 활동, 사회탐구 동아리 활동' 세 가지로 추릴 수 있어요. 입시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어느 학과든 리더십 있는 학생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님께서 내가 리더십을 갖춘 인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지표는 학생회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

미에서 제게는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 글쓰기와 토론 활동은 자기소개서의 주요 항목으로 포함시켰던 것만큼 제가 열의를 갖고 참여한 활동이었어요. 특히 면접에서 토론의 유형(AP format debate, CEDA 등)에 대한 구체적인 꼬리 질문을 받기도 했죠. 평소에도 꾸준히 연마해온 활동이었기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사회탐구 동아리 활동은 3년간 저를 가장 많이 성장시킨 주된 배경입니다. 매 시간 사회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국제관계학과가 요구하는 국제적이고 사회적인 안목은 물론 논리적으로 말하는 기술까지 훈련할 수 있었으니까요.

Q | 자기소개서 작성 시 공통문항 외에 대학자율문항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A | 경험자로서 조언해드리다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희망 진로와 지원 학과의 연관성입니다. 본인의 희망 진로 사유와 진로 계획에 대한 부분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와 커리큘럼, 학회 등에 대해 알고보고 진로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했었는데요. 이런 점들이 서울시립대에 진학하고 싶다는 열정을 강하게 나타낼 수 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Q | 서울시립대가 요구하는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대비한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이 있다면요?

A | 고3 때 수시박람회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서울시립대가 인재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이를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도록 노력했죠. 서울시립대는 각 모집단위별로 인재상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어떤 소재로 자기소개서를 쓸지 고민할 때 방향을 잡아주는 좋은 참고자료가 된답니다. 무엇을 강조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온다면, 본인이 희망하는 모집단위의 인재상부터 찾아보세요. 그런 후에 해당 소재에 대하여 '동기-도전-어려움-극복과정-결과-결과 분석-새로운 방향 제시'와 같은 7단계 분석방법을 사용했어요. 이를 문장으로 바꾸어 자연스럽게 고치고, 첨삭하는 과정을 통해 나만의 자기소개서를 완성했습니다.

Q | 인재상은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면접 시에도 답변 속에 잘 녹여내야 하는데요. 어떤 노하우가 필요할까요?

A | 서울시립대는 서류 확인 면접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았던 면접에서는 전공 관련 시사에 대한 질문도 큰 비중을 차지했어.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방금 예시로 언급한 A와 B 중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치 방식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는 서류에는 없지만 '정치외교 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는 국제관계학과 인재상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기에 충분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와 같은 서류에서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대한 준비과정을 잘 드러내야 하지만, 면접에서도 이를 확인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 준비해놓는 게 좋습니다.

Q | 서울시립대 면접은 확인면접으로 진행됩니다.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A | 확인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 속지인데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답변할 수 있을 만큼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많은 학생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바로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사실 기재입니다.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하지 않았던 내용을 이것저것 추가하는 학생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학교생활기록부에 본인이 하지 않았던 일을 기재할 경우 당장 급한 순간은 모면할 수 있어도 결국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본인이 속지하지 못한 내용이기에 면접과정에서 돌발 질문이 나오면 올바르게 대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한 활동을 바탕으로 내용을 속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와 같은 서류에서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대한
준비과정을 잘 드러내야 하지만,
면접에서도 이를 확인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
준비해놓는 게 좋습니다.

Q | 어떤 사람에게 학생부종합전형을 추천하나요?

A |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에 너무 신경 쓴 나머지 무리하게 비교과에 치중하는 학생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은 '비교과가 뛰어난 학생'을 뽑는 전형이 아니에요. 정말 특출난 학생이 아닌 이상 전년도 합격자 평균 내신과 본인의 교과성적이 많이 차이 난다면 합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과성적이 최상위권은 아니더라도 합격자, 혹은 지원자 평균 수치를 참고하고, 본인 고등학교의 유형과 입시 결과도 중요하니 모든 점을 충분히 고려하는 현명함이 요구됩니다. 또 본인이 희망하는 모집단위의 인재상을 잘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서울시립대는 인재상을 강조하거든요!

Q | 서울시립대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을 꿈꾸는 미래의 후배들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 해주세요

A |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많이 힘들고 지칠 텐데요. 그래도 늘 자신감과 자존감 잃지 말고 건강 나빠질 정도로 무리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예민한 시기겠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입시 끝나면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평평 놓고, 대학에 입학하면 더 신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견뎌요! 그리고 늘 곁에서 지원하고 응원해주는 부모님께서도 수험생과 같은 마음으로 조마조마하실 텐데 부모님 마음도 잘 이해해드리고 사이 좋게 지내요! '서울과 시대를 밝히는 별이 되어라'라는 슬로건처럼 함께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와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자연계열

지원동기는 확실하게, 진로계획은 꼼꼼하게

전유정 (환경공학부 19)



Q | 환경공학과와 관련된 활동들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A | 학생부종합전형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시점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입니다. 저의 장래희망은 미생물을 활용한 수질환경연구원이었는데요. 방학 때는 시민단체 환경동아리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 봉사활동에서는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며 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세제를 만들어 알려주는 길거리 캠페인, 수질오염도 측정 방법에 관한 교육, 'EM(Effective Micro-organism)홍공' 하천에 던지기 활동 등을 했어요. 학기 중에는 오염이 심각한 곳에 EM홍공을 직접 만들어 발효시킨 후 하천에 던져 수질 정화를 하는 활동도 병행했죠. 2학년 때는 주로 우리나라의 수처리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3학년 때는 세계 각국의 수처리 기술에 대한 논문을 읽고 탐구하여 발표하고 현재 개발 중인 미생물을 활용한 수질 정화 방법에 대해 논문을 읽고 탐구했습니다. 전공에 관해 어떤 활동을 한다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체계적으로 연계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좋아요. 이런 비교과 활동들이 전공적합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Q | 서울시립대의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맞춘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이 있다면요?

A | 서울시립대의 경우 다른 학교와 다르게 학부·과별 인재상이 있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2번 재학 중 교내활동과 4번 지원동기와 진로계획에서 이를 최대한 강조했어요. 제가 지원한 환경공학부의 경우 인재상이 환경문제에 대한 내재적 동기부여를 갖고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을 기반으로 공학적 응용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한 학생입니다. 제가 했던 전공 관련 활동에 대해서 단순히 수행했다는 결과보다는 '왜? 이렇게 해야 할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이를 수학,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죠. 얼마나 고민하고 능동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는지 드러나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라 조언해주고 싶어요.

Q | 자기소개서 중 대학 자율문항인 4번 '지원동기와 진로계획'은 어떻게 작성했나요?

A | 반드시 학과 홈페이지에 가서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확인하는 걸 추천합니다. 지원동기에는 타 대학과는 차별화된 서울시립대만의 장점을 찾아서 이런 이유들로 서울시립대에 입학하고 싶다는 것을 강조하세요. 저 역시 4번에서는 서울시립대의 교환학생 제도와 환경공학부의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4번에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때는 꼭 대학원에서 어떤 분야를 열망하, 어떻게 공부할 계획인지가 심도 있게 드러나야 해요. 막연한 지원동기나 진로계획은 서울시립대뿐만 아니라 어떤 대학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답니다.

Q |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해요.

A | 서울시립대 면접은 서류를 기반으로 한 서류 확인평가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 본인이 대학에 제출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구요. 저의 경우 내가 면접관이라 가정하고 나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본다면 전공에 관해서는 어떤 질문을 할지, 학업 역량에 대해서는 뭘 물어볼지, 궁금함을 자아내는 활동은 어떤 게 있는지 등을 형광펜으로 일일이 분류해서 예상 질문지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하나 더 보강한다면, 그해에 자신의 전공에 관해 이슈가 되었던 시사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과 근거, 또는 해결책 등도 함께 생각해 두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Q | 효과를 톡톡히 봤던 나만의 면접 꿀팁을 하나 귀띔해준다면요?

A | 저는 자기소개나 지원동기,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꼭 준비해가라고 조언해주고 싶어요. 지원동기와 인재상을 적절히 섞어 지원동기를 밝힌다면 훨씬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답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생명과학을 좋아하고 지금까지 학습한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흥미를 갖고 있어 수질환경연구원으로 진로를 좁힐 수 있었으며, 오랜 역사와 다양한 커리큘럼을 가진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라면 나의 미래를 가꿔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해 지원하게 되었다고 답변했던 기억이 나요. 면접관들의 반응도 좋았고요.

Q | 반대로 면접에서 이것만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A | 기본적으로 면접 현장에서는 긴장하지 않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처럼 압박면접으로 응시자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은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그래도 당황하고 긴장하면 내가 준비했던 답변을 제대로 소화

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나의 답변이 틀리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에 작은 목소리나 자신감이 부족한 태도, 교수님의 눈을 피하거나 딴 곳을 바라보는 자세를 자신도 모르게 취한다면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정해진 모범답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학생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위해서거든요. 때문에 면접에서는 자신감 넘치는 자세로 대화 도중 교수님들과アイコン택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예의 바른 태도는 필수이구요.

Q | 어떤 학생에게 학생부종합전형을 추천하고 싶나요?

A | 학교생활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친구들에게 이 전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학교생활을 충실히 적극적으로 한 친구들이었거든요. 많은 학생 사이에서 본인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입학사정관과 교수님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내가 면접관이라 가정하고 나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본다면 전공에 관해서는 어떤 질문을 할지, 학업 역량에 대해서는 뭘 물어볼지, 궁금함을 자아내는 활동은 어떤 게 있는지 등을 형광펜으로 일일이 분류해서 예상 질문지를 만들었어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학교생활이 기록되어 있어야 해요.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잖아요. 이때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에 있는 비교과를 중심으로 쓰여지죠. 그래서 저는 비교과를 탄탄하게 관리해야 자기소개서에서 남들과 차별화된 눈에 띄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차별화라고 해서 전공과 관련된 심화 활동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를 둔 활동이 아닐지라도 본인이 그 활동을 통해 무엇이

가 느끼는 것이 있었다면 그 활동이 좋은 스토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덧붙여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성적을 수치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적관리에 소홀한 친구도 더러 있는데요. 학교생활에는 당연히 성적까지 포함됩니다.

Q | 미래의 후배들에게 서울시립대 자랑 한마디 해준다면요?

A |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서울시립대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등록금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수시모집으로 학교를 지원할 때 서울시립대를 비롯해서 모두 서울에 위치한 대학교에 지원했어요. 그래서 만약 합격을 하면 당연히 좋지만 월세, 용돈, 등록금 등 부모님이 너무 부담감을 느끼시면 어쩌나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합리적인 등록금 덕분에 부담 없는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등록금만 합리적인게 아니라 서울시립대는 타 대학 부럽지 않은 무수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장학금이나 교환학생, 고시반, 중앙동아리 등 본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혜택을 누리며 즐겁고 알찬 대학 4년을 보낼 수 있죠.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입시에서 좋은 성적 거둬서 내년에는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에서 웃으며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Do & Don't

데이터만으로는 읽어낼 수 없는 나만의 강점을 어필할 절호의 기회,
자기소개서 작성의 핵심 요령을 알아보자.



자기소개서, 왜 필요할까?

3년간의 고교생활에 대한 사실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라면, 그 기록을 바탕으로 지원자가 본인의 역량을 자신의 관점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자기소개서다.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지원자의 활동 동기 및 과정을 나타내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gettyimagesbank

Check Point

Do

- 모집단위별 인재상 반영
-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확인(<https://admission.uos.ac.kr>)
- 실제 자신이 했던 활동 기준 동기-과정-결과에 대한 변화상
- 노력과 성장 포인트가 나타나도록 솔직함과 진정성이 드러나는 글

Don't

- 학교생활기록부와 대조했을 때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 글
- 문항에 맞지 않는 내용
- 단순 사실 나열
- 현란한 미사여구나 근거 없는 자기자랑
- 합격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내용 부실 등 성의가 부족한 글

작성 Tip

모집단위별 인재상이 드러나도록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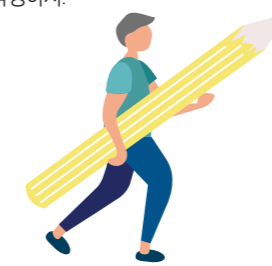
서울시립대 학생부종합전형의 중요한 특징은 모집단위별 인재상을 설정한 점이다. 모집단위별 인재상은 평가과정에서 평가기준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문항별 소재를 선정할 때 모집단위별 인재상을 이해하고 그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다.

실적 나열보다 과정 위주

누가 얼마나 많은 실적이 있는가를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많은 활동을 쓰기 위해 욕심 내기보다는 고교생활 중 지원자의 성장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동기-과정-결과가 나타나도록 작성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가능한 단순 실적 나열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잘 쓴 글보다 진정성이 느껴지는 글

자기소개서는 글솜씨를 뽐내는 것이 아니다. 화려한 수식어나 잘 모르는 학문 분야를 아는 것처럼 꾸며 쓰기보다는 솔직함과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성장 과정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자.



자기소개서 작성 금지 사항

사교육, 교외활동 기재 금지

학생부위주전형의 자기소개서는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주요 항목(논문(학회지) 등재나 도서 출간, 발명특허 관련 내용, 해외활동 실적, 교외 인증시험 성적 등)은 작성할 수 없다. 또 아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교외활동의 경우에도 작성이 제한된다.

사회적·경제적 지위 기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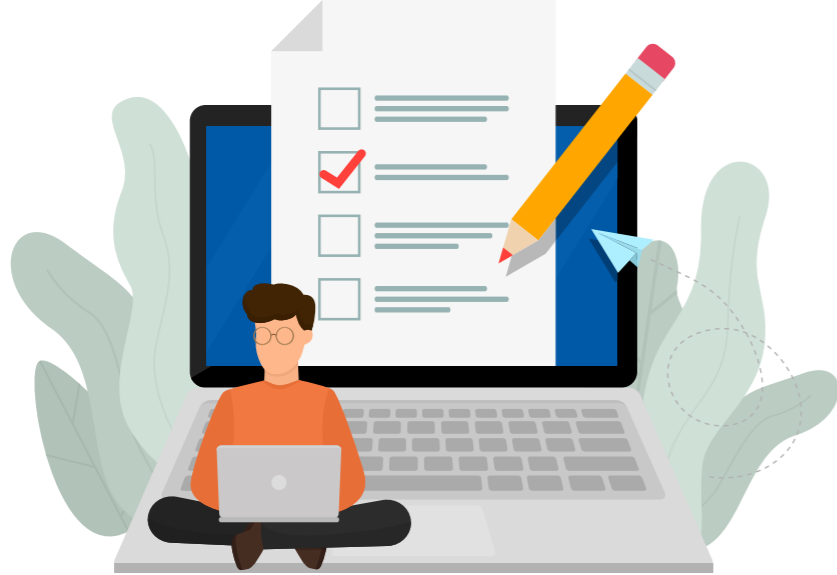
학교생활기록부 위주 전형의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원자의 성명, 출신고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외 수상 실적 기재 금지

자기소개서에 공인어학성적 및 수학·과학·외국어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면 서류평가에서 0점 또는 불합격 처리된다.

입학사정관이 직접 답한다!

자기소개서 인기 질문 BEST 8



1 Q |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의 평가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A | 학생부종합전형은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학생의 모든 면모를 종합적,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 요소별 특별한 평가 비중이나 비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의 반영비율이라거나 각 학년별 성적의 반영비율 등, 특정 반영비율은 없습니다. 서류평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해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이며,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는 항상 함께 하는 평가자료이며, 어느 하나만 중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Q | 자기소개서에는 어떤 문체를 사용해야 하나요? 꼭 존댓말을 써야 하나요?

A | 자기소개서에 특별히 꼭 써야 하는 문체나 어투는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통일된 문체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구어체를 쓰다가 문어체를 쓰거나, '~했다'라고 하다가 '~했습니다'로 바꾸는 등 통일되지 않은 문체를 사용하는 것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Q | 학교생활기록부에 별다른 활동이 없고 교과 성적만 높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A | 단순히 활동의 양이나 실적만 보고 서류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뽑는 전형이고 교과 성적도 학교생활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교과 성적을 등한시한 학생을 학교생활에 충신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시간을 통해 깨달은 점이나 과정을 우리 대학이 요구하는 역량과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맞게 강조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또한 활동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소개서는 궁극적으로 자신이 역량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서류입니다.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핵심활동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활동의 양을 늘리려고 원치 않는 활동을 하거나, 자기소개서에 넣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고등학생 입장에서 특별한 활동이나 과도한 활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3

4 Q | 어떤 활동을 자기소개서에 써야 하나요?

A | 학생부종합전형은 활동 그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 지원자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평가합니다. 활동은 역량에 대한 근거일 뿐, 활동 자체로 역량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야에 수상 실적이 있거나 소논문을 작성했다고 그 분야의 전문성이나 역량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활동을 했어도 사람마다 각각 느낀 점도 다르고, 세부적으로 한 일도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활동이라고 해도 사람마다 강조할 부분은 각자 다릅니다. 또한 고교 환경에서 대학전공과 딱 맞는 활동을 찾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고교 환경을 고려하여 넓은 관점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할 전공에 반드시 맞추겠다고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소개서는 궁극적으로 어떤 활동을 쓸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어떤 역량을 강조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대학의 모집단위별 인재상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기 바랍니다.

5 Q | 진로희망이 도중에 바뀌면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나요? 진로희망 변경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A | 고등학생이 진로희망을 바꾸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단순히 진로희망이 바뀐 점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희망이 왜, 어떻게 변했나라는 과정입니다. 있는 그대로 평가자가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하면 됩니다.

6 Q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활동을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나요?

A | 공인어학성적이나 교외수상실적은 자기소개서에 적을 경우 0점 처리(모집요강 참고)됩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활동을 써도 해당 활동은 증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에 맞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활동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7 Q | 자기소개서를 쓸 때 꼭 특별한 지원동기나 롤모델이 있어야 하나요?

A | 대부분 지원동기에 대해서 쓸 때, 특수한 계기나 특별한 직업군을 언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전공을 정할 때 꼭 특별한 계기나 존경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나 지인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내용을 적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전공의 어떤 면에 관심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왔는지 진솔하게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8 Q | 자기소개서의 각 항목의 글자 수는 반드시 다 채워야 하나요?

A | 지나치게 내용이 부실하지 않으면 글자 수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글자 수를 채우려고 억지로 문장을 늘리거나 활동을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기소개서를 기한에 쫓겨서 촉박하게 작성하다가 문장을 마무리 짓지 못하거나 내용이 부실한 채로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자기소개서는 입학에 대한 성의 부족으로 볼 수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점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기 바랍니다.



시대가 원하는 면접의 기술

모집단위별 인재상을 중시하는 서울시립대는 면접도 이에 맞춘 대비가 필요하다. 지나친 걱정과 긴장은 금물. 면접관으로부터 직접 듣는 서울시립대 면접의 경향, 그리고 해법을 참고하자.

“ 생각하는 훈련 통해 유연한 사고를 갖춰야 ”

박기영 교수(국어국문학과)



Q | 서울시립대 확인면접에서 반드시 질문의 대상이 되는 필수 항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학과마다 다르겠지만, 국문과의 경우 주로 독서 활동, 창의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장래 희망이나 진로, 교과성적의 추이 등과 관련하여 질문하고 응시자가 대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를 합니다. 특히 독서 활동과 관련한 질문은 빠짐없이 했던 것 같은데요.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면서 학생이 정말 우리 학과의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입학해서도 자신의 재능을 즐기면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학 작품이나 우리말에 대해 비판적으로 감상하고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가를 면접과정에서 주요하게 판단하죠.

Q | 최근 대학교 면접의 트렌드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강한 압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응시자가 늘어난 것도 무관하지 않을 텐데요. 면접을 통해 대학이 지원자로부터 궁극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짧은 시간의 면접을 통해 타인의 '인생'이나 '인성'을 판단 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판단을 내리려고 하지는 않죠. 다만 면접을 하다 보면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던 부분이 문답 과정에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면접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면접관이 동시에 느끼게 되는 지점도 존재하죠. 이러한 면접 과정을 통해 이 응시자가 정말 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학생인지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 | 평소 말주변이 없거나 지나치게 긴장하는 습관 때문에 고민인 응시자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긴장을 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면접관에게 약간의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면접을 잘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말하거나 막힘없이 말한다고 해서 면접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말주변이 없거나 느리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가지고 있는 힘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Q | 자연계열과 비교해 인문계열 면접 응시자에게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나 갖춰야 할 인재의 조건이 있나요?

균형 감각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서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또 같이'라는 의미와 함께 '유연한 사고'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나 하면,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는 협업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문계열 학생에게는 '따로' 자신의 생각을 다듬고 정리하는 훈련도 필요하다고 봐요. '유연한 사고'라는 것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에 대해 공감하고 인정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Q | 인문계열의 경우 인문 분야에 대한 통합적 사고, 현대사회의 이슈를 바라보는 폭넓은 지식을 요구하는 질의응답이 오가게 됩니다. 이에 대비해 평소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다양한 독서를 할 수도 있고 온라인 매체를 통해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훈련'이 아닐까 합니다. 한 권을 읽더라도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여러 가지 강연을 듣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곱씹어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 면접은 지식이 아니라 이해를 묻는 과정 ”

이수일 교수(기계정보공학학과)



Q | 서울시립대는 2019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부터 제시문을 활용한 발표 면접 없이 서류 기반의 확인 면접만 진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로 어떤 점을 평가하게 되는지요?

본인의 전공 선택 동기와 의지, 그리고 향후 학업 계획 등을 평가합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 중에 몇몇 항목에서는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면접대상자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사실 확인도 포함되어 있고요.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어떤 것에 대한 상황 설명이나 배경 등도 질문의 대상이 되죠. 교과 학습과 관련해서 기본 과목 및 선택 과목에 대한 본인의 학습 경험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모두 각 과별 인재상에 적합한 응시자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Q | 특히 모집단위별로 각각의 인재상을 설정하고 착실하게 대비해온 학생에게 합격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얼마나 준비된 '인재'인지 변별하는 면접의 키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전공과 관련된 선택과목, 예를 들어 공대 지원자라면 물리Ⅲ 등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본인의 '학습경험'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학습내용 자체의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학습경험을 바탕으로 과목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는지를 묻게 되구요. 또한 동아리 활동이나 창의체험 활동을 통해서 전공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갖게 되었는지를 주로 평가한다는 걸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Q | 면접관의 입장에서 지원동기와 진로희망을 가장 눈여겨보게 될 텐데요. 응시자들이 답변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조언해주고 싶으신가요?

동시에 여러 대학을 지원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자기소개서 내용과 다른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면접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자기소개서 작성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한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라도 면접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면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물론 자기소개서 입력 시에 잘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필수이고요. 또 최근에는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죠. 이름, 학교명,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직업 등을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Q | 자연계열 면접 응시자에게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나 갖춰야 할 인재의 조건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수학, 과학 등 이공계 교과목에 대한 학습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공계의 경우 대학에서 배우는 교과목과 여러 활동은 전문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공부를 충분히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학습동기를 가지고 진행하는 자기주도학습 능력뿐 아니라 기본 학습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과 역량은 대학에 입학해서 단시간에 키울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기에 어렵죠. 얼마나 탄탄하게 갖춘 상태인지를 유심히 보게 됩니다.

Q | 자연계열의 경우 전공학문에서 배우게 될 원리나 이론을 실생활과 연결해 폭넓게 이해하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평소 어떤 훈련이나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평소 주변의 자연이나 각종 제품에 관심을 갖고 어떤 원리가 들어 있고, 어떤 방법으로 설계했는지 관심을 갖고 정보와 내용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분야 독서를 충분히 하고 사고하는 훈련도 병행해야 하고요.



합격이 보인다 서울시립대 실기전형 준비 노하우

서울시립대 산업디자인학과와 음악학과를 지원할 예정이라면 꼭 거쳐야 할 관문, 실기고사.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전공 교수진이 직접 핵심만 콕콕 짚어 알려준다.

서울시립대 음악학과는 어떤 곳?

서울시립대 음악학과는 학문적 이론과 고도의 음악적 기능이 조화된 음악인 양성을 위해 1983년에 개설되어 올해로 37년째를 맞았다. 특히 21세기 현대적 음악의 흐름인 세계화에 발맞춰 우리나라와 세계의 음악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다. 현재 7명의 교수가 재직 중이며 9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음악학과 졸업생들은 전문 음악인이거나 음악지도자 등으로 활동하는 한편, 대학원 진학이나 유학 등을 통해 더 깊고 전문적인 학문의 길을 걷고 있다. 학생들은 매년 정기연주회, 정기 오페라 등 여러 차례의 학과 공식 연주회를 갖는다. 연주뿐만 아니라 공연 기획 홍보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통해 전문 음악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다채로운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다. 또 피아노학회, 성악연구회, 관악양상블, 현악양상블 등 재학생만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정기연주회와 꾸준한 연습을 통해 수업에서 쌓은 음악적 지식과 기술을 더욱 심화할 수 있는 기회로 이끈다.

실기고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2021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서울시립대 음악학과는 수시 실기전형의 모집인원을 확대한다. 기존 4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실력을 갖춘 인재

에게 기회의 문을 더 활짝 열겠다는 학교의 의지를 짐작하게 한다. 작년도에 비해 6명 늘어난 10명을 성악과 피아노 실기고사를 통해 선발한다. 전형방법은 학생부교과 10%와 실기고사 90%로 종전과 동일하며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은 전 학년 전 교과와 등급 반영으로 처리된다.

수시전형 실기고사는 성악 전공과 피아노 전공 2개 과목에서 실시하며 피아노는 지정곡과 자유곡 각각 1곡, 성악은 이태리곡과 독일곡 각각 1곡을 부르게 된다. 먼저 성악의 경우 2곡 모두 아리아는 원조, 원어로 부르되 다른 가곡과 언어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실기고사는 단 하루 동안 정원의 열배가 넘는 응시자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인다.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심사위원을 사로잡는 발성과 탄탄한 기본기가 연마되어 있어야 한다.

피아노 전공의 경우 지정곡은 쇼팽의 연습곡 Op10, Op25 중 1곡을 선택해 연주하며 자유곡은 베토벤 소나타 중 빠른 악장 정도 수준의 곡으로 준비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당일 진행상황에 따라 심사위원은 연주를 중단시킬 수 있다. 단숨에 귀를 사로잡는 타건과 테크닉은 필수다.

정시모집 실기고사의 경우, 작곡, 성악, 피아노, 관현악 4개 과목으로 실시하며 전형방법이 작년과 달리 수능 30%,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및 출결) 10%, 실기 60% 반영으로 변경됐다.

Interview

“강렬한 첫인상이 실기고사 당락을 결정합니다”

음악학과 전기홍 교수

Q | 성악과 피아노 전공으로 치러지는 실기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은 무엇인가?

일단 기본기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색깔을 과시하기보다는 얼마나 충실히 훈련해왔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죠. 또 하나는 실기고사는 한정된 시간 내에 소수의 인재를 선발해야 합니다. 보통은 1분 안팎에서 당락이 결정되죠. 그래서 강렬한 첫인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Q | 그렇다면 피아노 전공의 경우 어떤 연주가 좋은 점수를 받을까요?

무엇보다 소리의 울림이 좋아야 합니다. 머리가 아닌 감각을 먼저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하죠. 곡의 이하나 화려한 기교 등 많은 것을 보여주기에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요. 때문에 연주가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나의 연주가 어떤 소리를 들려주느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Q | 성악의 경우는 어떨까요? 몸이 악기인 만큼 컨디션 조절이 중요해 보입니다.

성악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조언해드리자면, 시험 당일에만 컨디션 조절을 하려고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컨디션 조절도 훈련이예요. 전공 레슨을 갈 때마다 그날이 실기고사라 생각하고 컨디션을 조절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죠.

Q | 졸업 후의 진로도 응시자들의 큰 관심입니다. 음악 분야로의 진출은 당연한 것일테고 혹시 음악 외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나요?

서울시립대의 좋은 제도 중에서 복수전공이 있습니다. 3학년부터 가능한데요. 과감한 진로 변경을 통해 성공한 케이스가 졸업생 중에 꽤 많아요. 금융계, 제약회사, 교사 등 아주 다양하죠. 그들이 음악과 아예 동떨어진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 동호회나 지역사회에서 레슨이나 연주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스승으로서 대견한 생각이 들죠.

Q | 그 밖에 서울시립대 음악학과만의 우수한 장점과 인프라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먼저 인프라 면에서 서울시립대가 보유한 공간과 시설은 어떤 대학과 경쟁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300석 규모의 콘서트홀은 국내 최



고 수준의 음향시설을 갖췄다고 평가받죠. 내로라하는 경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교수진 역시 커리큘럼 연구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다양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타 대학과 차별화된 서울시립대의 강점이지요.

Q | 디지털 시대에 대처할 음악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커리큘럼도 마련되어 있나요?

서울시립대 음악학과에서는 전공 교수가 지도하는 컴퓨터음악 관련한 커리큘럼을 운영 중입니다.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기본적인 이해와 활용은 전 학생이 이수하도록 하고 있죠. 클래식 음악도 문명의 이기와 결합하면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리니까요.

Q | 끝으로 시립대 음악학과를 지망하는 미래의 제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립대 음악학과는 실력과 인격을 모두 갖춘 인재를 추구합니다. 그건 예술전공자로서의 기본 소양이기도 하고요. 탄탄한 인프라와 다양한 학사제도, 훌륭한 교수진을 갖춘 시립대에서 여러분의 실력은 물론 인격까지 더욱 진일보하는 기회와 마주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립대 산업디자인학과는 어떤 곳?

서울시립대 산업디자인학과는 디자인의 이론적, 문화적 그리고 조형적 맥락을 조영하고 여러 학문의 지식을 융합하는 과정을 통해 고품질 디자이너 배출을 목표로 한다. 소수 정원의 정예교육을 지향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집약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자 공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으로 전공을 이원화해 전공을 구성했다. 전공과정에서는 디자인에 대한 역사, 사회, 문화적 관점의 이해를 기초로 다양한 실험과 실습교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디자이너로서 갖춰야 할 창의 역량을 집중 지도해 미래를 준비하는 진취적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정규 교과과정 이외에도 국내외 명사초청 특강 및 워크숍 프로그램, 국외 교환 교류, 국내 우수기업과의 전략적 프로젝트 및 지속적인 글로벌 산학 연계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졸업 후 진로는 공업디자인 전공의 경우 대기업 디자인연구소를 필두로 중견기업 디자인 개발실, 교육기관 교사 등으로 진출이 활발하며 시각디자인 전공의 경우 홍보 및 광고대행사, 출판업체, 모션그래픽 등 뉴미디어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실기고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산업디자인학과는 지난 2019학년도부터 수시 실기전형을 신설했다. 또 '기초디자인' 종목이 신설되어 주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 기본 실기

능력을 고르게 평가하는 추세다. 결국 기본기가 탄탄한 인재를 더 높이 평가하고 선발하겠다는 뜻이다.

전형방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단계의 평가과정을 거치며 최종 3단계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35%와 실기 35%, 마지막으로 면접 30%를 반영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도 실기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결국 당락의 키는 성적이나 면접이 아닌 기초 실기능력이 쥐고 있다고 봐야 한다. 또 전공별 1, 2단계 선발인원 배수는 1단계 시각디자인 공업디자인 둘다 10배수, 2단계 시각디자인 공업디자인 둘다 3배수로 바뀌었다.

같은 학과이지만 전공별 출제 의도와 경향은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업디자인의 경우 제품 디자인에 특화된 구조적 상상력을 가진 응시자가 유리하며, 시각디자인 전공의 경우 창의적 발상과 주제를 이해하는 사고력을 작품 속에서 입증해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두 전공 모두 도식화, 정형화된 그림은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 출제문제에서 제시하는 주제에 맞춰 자신만의 이야기로 다양하고 독창적으로 풀어낸 작품이 유리하다. 또 제한된 시간 내에 작품을 완성해야 하므로 자신의 기본 실기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표현방법으로 자신감 있게 그리는 요령이 필요하다. 실기고사는 작품을 사이에 두고 나와 심사위원 간에 오가는 대화라고 생각하고 작업에 임하는 태도가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다.



Interview

“난해하고 도식화된 표현은 금물, 시간 안배는 충분히”

산업디자인학과 손근민 교수(시각디자인전공, 학과장)
이푸로니 교수(시각디자인 전공)
김병수 교수(공업디자인 전공)

Q | 기초디자인 종목에서 전공별 출제 경향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먼저 시각디자인 전공의 경우 주제 해석능력과 구성능력을 중요시합니다. 응시자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고요. 공업디자인 전공의 경우 제품디자인과 환경디자인에 특화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공간 인지능력과 구조적 상상력이 뛰어난 디자인을 요구합니다.

Q | 실기고사에서 해선 안 되는 대표적인 실수를 지적해주신다면요?

역시 시간 안배겠죠. 아무리 뛰어난 그림이라도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완성된 형태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모의고사를 통해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학원 등에서 암기하듯 습득한 판에 박힌 그림도 주의를 요합니다. 공업디자인, 시각디자인 모두 응시자의 독창적인 해석을 원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Q | 실기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조건도 궁금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기본능력이 탄탄해야 합니다. 특히 정시와 달리 수시모집에서 기초디자인 종목이 신설된 것은 그만큼 준비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이니까요. 따라서 기본능력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제시된 대상물 혹은 제시어에 맞춘 신선한 해석에 주안점을 두는 게 좋습니다. 실기고사는 혼자만의 독백이 아니라 나와 심사위원 간 소통의 창구임을 꼭 명심하세요.

Q | 그렇다면 평소 어떤 훈련을 해온 응시자에게 보다 유리할까요?

산업디자인학과뿐만 아니라 모든 학과가 마찬가지겠지만 생각의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에게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특히 디자인 분야는 시대의 흐름에 빠르게 반응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기민함도 필요하고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흥미를 느끼는 데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또 자신의 작품을 알기 쉽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매우 중요하죠.



Q | 3단계 면접고사도 많은 응시자가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실기고사는 내가 그린 작품을 놓고 심사위원과 나누는 대화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면접고사는 비로소 나의 작품을 타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인 것이죠. 자신감 있는 태도는 기본이고요.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작품 의도와 감상 포인트를 설명하면 좋은 점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Q | 끝으로 산업디자인학과를 지망하는 응시자들에게 힘이 되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립대 산업디자인학과는 각 전공별 15명 내외의 소수정예로 꾸려나가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문적 성취감보다는 실제 디자인 현장에서 원하는 실무형 인재를 키우고 배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고요. 국공립대학의 합리적인 등록금과 장학제도 또한 서울시립대의 큰 장점이자 매력입니다. 모쪼록 미래의 디자인 인재들과 반가운 만남을 기대합니다.

대학은 나의 힘

대학 생활이 소중한 이유는 꿈을 이뤄줄 수 있는 배움과 그것을 펼칠 기회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전공을 살려 기량을 갈고닦아 성과를 이뤄낸 서울시립대 재학생들을 만났다.

Q | 재학 중에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셨죠? 관세사 시험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전 자유전공학부로 서울시립대에 입학했어요.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하면 한 학기 동안 학과 설명회,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 특강에 참가하면서 자신의 희망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원래는 행정학과나 국제관계학과에 관심이 있었는데 세무학과 수업을 들어보고 세무학만의 매력에 빠져 관련 직업인 관세사에도 도전하게 됐죠.

Q | 세무학의 매력이 무엇인가요?

내 삶과 가까운 정보를 공부한다는 거죠. 조세법이나 소득세 공제, 상속 문제처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와 닿는 지식을 쌓는다는 게 멋있었어요. 그리고 세무학과의 대표적인 진출 직업인 세무사나 회계사와는 달리 관세사는 좀 더 재밌는 직업이라고 생각해 선택했구요.

Q | 관세사라는 직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관세사는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물건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세금을 계산하는 등 통관을 대행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면 무역과 관련된 모든 곳에서 일할 수 있는데요, 관세법원에서 일하거나 무역협회, 다국적 기업 등에서 일한 뒤 관세청 공무원으로 전직하기도 해요. 관세사가 되려면 1차, 2차 시험을 봐야 해요. 1차 시험에서는 관세법개론과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과 회계학을 치르고요. 2차 시험에서는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를 평가하죠. 전 그중에 관세법이 제일 재밌었고, 아무래도 경험이 없더니 무역실무 과목이 어렵더라고요. 어려웠던 만큼 더 시간을 투자해 공부했구요.

Q | 관세사 시험은 국가전문자격증인 만큼 합격이 쉽지 않잖아요. 2년 만에 합격한 본인만의 비결이 궁금해요.

포기하지 않고 엉덩이 붙이고, 이 악물고 버티는 게 비결인데요. 전 학원보다

는 독학하는 공부법이 편해서 휴학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책 한 권을 정해서 여러 번 읽었죠. 깊이 있게 보기보다는 빠르게 읽으면서 회독 횟수를 높인 거예요. 관세법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틀을 잡는 게 중요해서 도움이 됐죠. 거의 최연소로 합격할 수 있었던 건 전공수업으로 미리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회계학 등의 원리를 배운 뒤라 더 수월하게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Q | 힘든 수험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 있었나요?

일단 휴대전화를 정지시켰어요. SNS며 채팅앱이며 전부 삭제했구요. 연락을 안 한다고 친구가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웃음) 그리고 꾸준히 운동하고 몸에 좋은 건 챙겨 먹으려고 했어요. 공부도 체력싸움이니깐요.

Q | 수험생 때 서울시립대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시립대 캠퍼스 투어에 참가했어요. 그때는 서울시립대를 모르는 친구도 많았고 캠퍼스 규모도 작을 거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실제로 와보니 생각보다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지원할 때 고민 없이 서울시립대를 선택했죠. 다행히 면접도 잘 봤고요. 면접장에서 나오는데 기분이 정말 좋은 거예요. 합격할 예감이었던 걸까요?(웃음)

Q |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을 보면 우스갯소리로 '서울시립대 최고의 장점은 합리적인 등록금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합리적인 등록금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등록금 마련을 위해 쓸 시간과 비용을 자기계발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건 공립대생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이거든요. 우리 대학에 오고 싶다면 나를 돌아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알아본 뒤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을 부지런히 찾아보세요. 면학 분위기를 갖춘 역사 깊은 서울시립대를 선택한다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
삶과 가까운 공부라 더 재미있어요

박소영(세무학과 14학번, 관세사 합격자)

”





“ 버려지는 일회용 컵을 작은 정원으로 ”

UAUS 전시회 대상 수상자

정욱호(건축학부 16), 장혜림(건축학부 16), 김동욱(건축학부 13)

Q | UAUS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동욱 올해로 8회를 맞은 UAUS 전시회는 대학생 건축과연합회가 주최하는 대회예요. UAUS는 서울·경기 지역 21개 대학 건축학과 연합 단체로, 매년 UAUS 전시회를 열고 있어요. 장소와 주제가 주어지면, 이에 맞는 건축물을 제작하는 거예요. 올해는 독섬에서 '서울 마켓21'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어요. 혜림 매년 5월 2~3째 주에 전시가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3월부터 준비를 해요. 저희는 교내 경선을 통해 참가팀을 뽑아 3월부터 대회를 준비했죠. 전시가 끝나고 나면 10일 이후에 심의성, 지속가능성, 구조적 안전성, 주제 적합성을 토대로 심사가 이뤄져요.

Q | 대상 수상작 컵플라워는 어떤 작품인가요?

욱호 일회용 컵을 화분처럼 활용한 '컵플라워'를 꽃을 수 있는 파빌리온이에요. 수많은 일회용 컵이 버려지는데, 그렇게 버려지면 쓰레기 더미가 되잖아

요 거기에 식물을 담으면 조그마한 자연, 정원, 숲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섬이라는 환경과 잘 어울릴 것 같았고, 마켓이라는 주제와도 연결된다고 판단했어요.

Q | '서울 마켓21'이라는 주제에서 컵플라워를 도출해낸 과정이 궁금해요.

혜림 대회의 큰 주제가 마켓이기 때문에 상품을 진열하는 가판 모듈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가판에 진열할 상품의 세부 카테고리도 취미, 패션, 음식, 생활 네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 학교에는 취미 카테고리가 배당됐어요.

동욱 그래서 처음에는 LP처럼 취미 카테고리 안에 있으면서, 상품으로 전시를 할 수 있는 여러 후보를 생각했어요. 그러다 독섬에 갔는데,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걸 보고 컵플라워를 생각하게 됐죠.

Q | 준비 과정은 어땠나요?

욱호 제작 과정 하나하나가 다 기억에 남아요. 예산도 고려해 재료를 고르고 구매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 모두 처음 해보는 일이었거든요.

동욱 파빌리온을 제작하기 위한 나무나 식물을 구하기 위해 발품을 많이 팔았어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종묘 꽃시장, 남대문 꽃시장 등을 찾아다녔죠. 목판을 구할 때에는 건축재료 파는 시장에 찾아가고요. 덕분에 평소에 가보기 어려운 곳을 많이 다녔어요.

혜림 전시를 진행하는 10일 동안 24시간 도슨트를 해야 돼요. 저는 새벽 시간대를 맡아서 파빌리온 근처에 돛자리 깔고 자면서 도슨트를 진행했죠.

Q | 전시를 진행하면서 수상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혜림 처음부터 확신이 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판 위에 다른 상품을 올려놓아도 상관이 없는 파빌리온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컵플라워 외에 다른 것을 올려놓기 어려운 파빌리온이라는 점이 좀 걱정됐거든요.

욱호 전시를 하면서 심사위원 앞에서 발표를 했는데, 걱정과 달리 반응이 좋았어요. 또, 10일간 전시를 하면서 시민분들의 반응을 보고 5팀 안에는 들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동욱 저희 스토리가 제일 탄탄했거든요. 일회용 컵을 화분으로 활용하면, 꽃집과 카페가 협업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던 게 좋은 평가를 받았죠.

Q | 교내 경선을 통해 올라간 만큼 학교의 도움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욱호 황경주 지도교수님께서 거의 매주 한 번씩 작품의 방향성을 제시해주셨어요. 전체적인 스토리 구성부터 일정 체크까지 세세하게 챙겨주셨죠.

혜림 파빌리온이기 때문에 구조적 안전성이 중요했는데, 교수님이 구조 전문가여서 이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동욱 나무를 가공하려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해요. 우리 학교 선배가 해당 분야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고 나무를 가공할 수 있었죠. 덕분에 비용이 많이 절감됐어요.(웃음)

Q | 수상하게 되면 내년 UAUS 기획단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동욱 지금은 서울시 건축비엔날레도 병행하고 있어요. UAUS에 참가한 대학 중 7팀은 전시에 참가할 수 있거든요.

욱호 그 외에 UAUS 기획단으로서 하는 본격적인 활동은 9월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혜림 내년에 진행되는 전시회를 저희가 총괄해야 하는데, 서울시 관계자와



← UAUS 전시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 '컵플라워'.

↓ UAUS 수상자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수상작을 전시할 수 있다.



미팅을 하고, 강의를 할 건축가 섭외 등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일단 다른 학교 학생 17명을 추가 선발한 상태예요.

Q |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자랑을 해주세요.

욱호 대한민국에서, 건축계에서 유명한 분들이 교수님으로 계신다는 점! '잘 생겼다 서울' 프로젝트 리노베이션, 베니스 비엔날레,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큰 행사를 주도하시는 교수님이 정말 많이 계세요. 이런 교수님이라서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자랑이죠.

혜림 서울시립대 건축학부는 도시과학대학 소속이에요. 도시과학대학이 서울에서 최고 수준의 단과대라는 거 아시죠?(웃음) 단과대 내 학과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축학과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답니다.

동욱 예쁜 캠퍼스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요. 보행로와 차도가 완벽하게 분리돼 있어 산책로 같은 느낌이고, 서울시립대공원이라고 할 만큼 캠퍼스 자체가 권위적이지 않고요. 또 저희 선배들이 직접 꾸민 캠퍼스라는 것도 자랑거리 중 하나예요.

나의 꿈, 나의 시대

모두가 똑같은 미래를 꿈꾼다면 세상은 재미없다. 누군가는 평생의 일터에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건설하고 또 누군가는 다섯 줄 악보 위에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끝없이 채워나간다. 각자의 방법으로 세상을 밝히는 시대의 별. 그런 사람을 만났다.

51%의 사명감과 정책의 흐름을 읽는 눈

국회입법조사처 이복우 기획관리관(도시행정학과 90)

Q |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996년 입법고시에 합격하면서 23년째 공직에 몸담고 있고요. 국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관으로 시작해 국회 내 다양한 부서를 두루 거치다가 지금의 국회입법조사처로는 지난 7월 2급 이사관 승진과 함께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좀 오래됐지만 서울시립대에서는 도시행정학을 전공했어요.

Q | 국회입법조사처라는 이름이 좀 생소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국회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방대한 조직입니다. 국회의원의 정치활동만 주로 부각되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이죠. 국회입법조사처는 쉽게 설명하면 매우 종합적인 정책분석기관, 일종의 싱크탱크(Think Tank)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 2006년 설립되어 국회의 다양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과 정책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연구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 대학 신입생 시절부터 공직을 꿈꾸셨는지요.

그렇진 않았어요. 사실 저의 꿈은 방송국 PD였습니다. 제가 전공한 도시행정학은 일종의 실학이예요. 도시의 교통, 교육, 환경, 치안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발전시키려는 학문이죠. 대학 2학년 때 공무원도 그런 공적 영역에서의 발전을 모색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Q | 공무원, 특히 고위 공무원을 꿈꾸고 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자질과 능력은 무엇인가요?

꼭 고위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단순명료합니다. 선공후사(先公後私). 아무리 사적인 욕망이 크더라도 그건 전체의 49%를 넘어선 안 됩니다. 51%는 공적 영역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사명감이 차지해야 되는 거죠.

Q | 사명감 외에 갖춰야 할 다른 능력을 하나 더 꼽는다면요?

세상의 흐름, 그중에서도 정치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하는 능력과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사회의 공적 가치를 위해 우리 정치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니까요.



Q | 사실 어린 학생들마저 너도나도 공무원을 꿈꾸는 세대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맞습니다. 책에 비유하자면 공무원은 스테디셀러에 가깝습니다. 베스트셀러로 등극하는 게 올바른 세태라고 보긴 힘들죠. 물론 아닙니다. 고용불안, 노후 문제, 삶의 질 등 공무원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공후사의 자세, 사회의 공적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사명감이 뒷받침되어 있다면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Q | 서울시립대 입학 당시 인문계열 수석이셨다고요. 재학 중에는 어떤 학생이셨나요?

저는 경주가 고향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경주에서 줄곧 배우고 자랐죠. 서울시립대에 입학해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처음엔 고생이 많았죠. 늘 부족한 주머니 사정과 시골 수재들이면 으레 겪게 되는 도시 생활의 부침이 있거든요.(웃음) 그런데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던지 주변으로부터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 어려운 처지를 공감하고 배려해주는 친구들 덕을 많이 봤죠. 그리고 평생의 은사님도 대학에서 만나뵈게 됐고요.

Q | 평생의 은사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우리나라 행정학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 윤재풍 교수님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인연으로 만나 제 주례까지 맡아주시는 분이죠. 고귀한 성품과 검소한 삶, 학자로서의 학구열은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참스승이세요. 제가 진로 고민으로 방황할 때도 교수님의 한마디가 결국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었죠.

Q | 시대생을 꿈꾸는 미래의 후배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공부란 전부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인생이란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공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많은 경험을 쌓고 다방면의 사람을 만나고 놀랍고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자꾸 문제에 부딪힐수록 큰 인재로 성장할 길이 열립니다. 지식보다 더 값진 재산을 쌓기에 가장 좋은 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세상 속으로 뛰어주세요. 응원합니다.

“ 작곡은 지식이 아닌 감성의 영역 ”

작곡가·음악감독 박형준(음악학과 98)



박형준 음악감독은 삼성, LG,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1,000여 편의 광고 음악 작곡 및 편곡,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현대카드), '여름이니까~ 아이스커피(맥심), '좋은 기름이니까~ (S-Oil), '공무원 시험 합격은 〇〇'처럼 우리 귀에 익숙한 노래가 많다.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공식응원가 작곡, <뽕반>, <공조> 등 영화 예고편 작곡 <버블피터>, <스페셜포스> 등 게임 음악 작곡.

Q |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5년째 광고음악, 영화 예고편, 게임 트레일러 등 다양한 영상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음악학과 98학번이고요. 1999년 제11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면서 본격적으로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광고음악을 만드는 일은 대학 졸업반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1000곡 정도 만들었죠.

Q |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면 싱어송라이터의 등용문 같은 대회잖아요?

맞아요. 1회 우승자인 조규찬 씨를 비롯해 많은 싱어송라이터를 배출했죠. 그런데 저는 사실 싱어송라이터라기보다는 송라이터에 더 가까웠거든요. 대회에서 받은 상금으로 악기를 사고 작곡의 매력에 눈을 뜨면서 줄곧 이 길을 걷게 됐죠. 다행히 노래에 대한 갈증 같은 건 없더라고요.(웃음)

Q | 광고음악을 만드는 것은 신나고 유쾌한 직업처럼 보이지만 창작의 고충도 심하다고 들었어요.

일단 광고음악은 '남이 주문한 음악'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음악적인 색깔을 입히긴 어렵죠. 광고주가 원하는 결과물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보통 3개월이면 반짝하고 사라지는 음악들이죠. 그래서 늘 귀가 열려 있어야 하고 새로운 것에 기민하게 반응해야 해요. 촉박한 작업시간에도 익숙해져야 하고요.

Q | 2013년 발표한 첫 개인 앨범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작업이었겠군요?

2009년 회사를 옮기며 한 달 정도 시간이났을 때 혼자 유럽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때 느낀 감흥과 인상을 악보 위에 옮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죠. 빠르게 소비되는 음악을 만들면서 저 역시 삶의 에너지가 많이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나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죠. 그때 앨범과 같이 출간했던 포토 에세이 제목이 '페르마타(Fermata)'였어요. 이탈리아 말로 정류장이라는 뜻이지만 음악용어로는 '쉬어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Q | 서울시립대 음악학과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이건 좀 허탈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집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교였어요.(웃음) 제가 초중고 시절을 모두 청량리를 끼고 생활했거든요. 늘 봐왔던 학교라 잘 알고 있기도 했고요. 물론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부모님의 부담을 줄여준 등록금도 서울시립대를 선택한 요인이었죠. 재학 중에는 다채로운 장학금 제도 덕에 학업과 작곡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졸업 후에도 나의 모교가 앞장서서 반값등록금을 시행한다는 뉴스를 보며 시대인으로서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Q | '시대생 박형준'의 캠퍼스 라이프가 궁금해요.

내가 고등학생 때 이렇게 뭔가에 열중하고 공부했었다면 더 큰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1998년도에 입학하자마자 92학번 선배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MIDI 스테디에 참가하면서 실용음악 작곡에 눈을 뗐죠. 수업이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방학 중에도 스테디는 계속 이어갔고요. 그때의 배움으로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Q | 진로나 미래를 결정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신가요?

당시 음악학과 작곡 교수님이셨던 김성기 교수님입니다. 제가 이제껏 만나보았던 스승님들 중 가장 잊지 못할 은사님이신데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방학 때에도 학기 중에 못 끝냈던 화성 수업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주일엔 한 번씩 클래스를 열어주셨어요. 현대화성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의 작곡과 풍토에서 화성의 기본기를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는 곳은 서울시립대 음악학과가 유일했죠.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작곡의 핵심을 김성기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Q | 현대음악 작곡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성장의 팁을 하나 알려주신다면요?

후배들에게도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학교 수업이나 과제에만 너무 얽매지 마세요. 정작 사회에 나왔을 때 요구되는 능력은 학업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거든요. 작곡 전공을 예로 들면 최소한 미디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내가 생각한 음악을 남에게 들려줄 수 있는데 이걸 어려워해요. 연습이 안 되어 있는 거죠. 학창시절에 미리 만들어서 발표해보고 대회에도 나가고 그런 과정들이 성장으로 이끈다고 생각해요.

Q | 끝으로 성공한 롤모델로서, 선배로서 힘이 되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악, 특히 작곡은 학문적인 배움도 필요하지만 감성적인 측면의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건 타고난 재능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 얼마나 많이 보고 듣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런 점에서 여행은 가장 좋은 감성 충전의 기회라 생각하고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 음악학과와 수준 높은 인프라와 훌륭한 스승, 선배들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SNS 홍보기자단
이석이(건축학부 13학번)



홍보대사 이루미
최상필(경제학부 15학번)

시대인의 모든 것, 우리가 알려줄게!

대학마다 학생 홍보대사가 있지만,
서울시립대는 좀 더 특별하다.
행사 의전, 입시, SNS 등 전문 분야를 맡은
홍보대사들이 수험생의 궁금증을 척척 해결해준다.
서울시립대 A부터 Z까지
학교 구석구석의 소식을 전하는
시대의 홍보단을 만나보자.



입학홍보대사 스카우터
최화용(환경공학부 15학번)



**서울시립대는 학교를 알리는 여러 홍보대사가 있다고 들어요.
각자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소개해주세요.**

최상필 이루미는 학교 행사의 의전 활동과 홍보를 담당해요. 총장님 취임식이나 외부 인사 초청 행사, 캠퍼스 투어, 봉사 활동 등 공식 행사에서 진행과 안내를 맡고 있죠. 또 학교 홍보 사진과 영상 촬영을 할 때 모델로 참가하기도 합니다. 대내외에 우리 학교를 홍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최화용 스카우터는 서울시립대의 입시 정보를 안내해요. 스카우터 학생들 모두 학교 입시 제도에 대해 깊이 공부해 입시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전국에서 열리는 입시 박람회에 참가하고 있어요. 또 작년부터 진행한 'ComePath 멘토링'을 통해 재학생들과 수험생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석이 SNS홍보기자단은 서울시립대의 공식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주로 10대와 20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들로 카드 뉴스, 사진, 영상을 제작해 서울시립대만의 이야기를 알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대학 생활, 연애, 게임, 맛집 등 많은 사람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게시물을 업로드해 서울시립대에 대한 친근함이 이 끌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과
각 홍보대사의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최상필 이루미는 폭넓은 소통과 효과적인 온라인 홍보를 위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다양한 SNS를 통해 이루미가 진행하는 행사, 의전 활동, 캠퍼스 투어 등을 살펴볼 수 있고, 월간과 주간 학사일정을 게시하고 있어 빠르고 정확한 학교 소식을 알 수 있죠. 또 수강신청 꿀팁, 재학생이 누릴 수 있는 혜택 등을 정리하고, 고등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게시해 서울시립대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최화용 스카우터 역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활동하고 있는데요, 수험생을 위한 카드 뉴스와 학교 홍보 및 입시 관련 영상을 직접 제작 업로드해요. 서울시립대 학과 소개, 학생 유형별 지원 가능 전형, 교내 다양한 제도와의 같은 콘텐츠를 카드 뉴스로 보기 쉽게 정리하고, 입시 정보 멘토링 영상도 공유하고 있으니 원하는 정보를 쏙쏙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석이 SNS홍보기자단도 페이스북 <서울시립대학교>, 인스타그램 <uos_official>, 유튜브 <배봉테레비>라는 3개의 SNS 채널에 학교 소식을 올리고 있어요. 모두 대학 생활과 관련돼 있지만,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페이스북에는 주로 재학생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벤트 소식을 알리고, 인스타그램에는 학교의 감성적인 사진들과 짙막한 글을, 유튜브엔 학생들의 일상적인 이야기와 생각이 담긴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어요. 서울시립대 학생들의 생활이 궁금하다면 SNS 채널로 구경하세요!



**홍보대사 활동을 하려면 학교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야 할 거 같아요.
서울시립대 홍보대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이석이 우리의 역할은 학교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보다 학교와 학생들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주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또래친구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일상을 서로 공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게 중요하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그 스토리를 표현하는 제작 능력이 있다면 SNS홍보기자단으로 제격이라 생각합니다.

최상필 홍보대사는 학교를 대표하는 얼굴인 만큼 서울시립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져야 해요. 학교에 대한 거라면 뭐든 알아내려고 하는 열정도 필요하고요. 이루미는 매년 11월쯤에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입 기수를 선발하는데,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에서 학교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최화용 저는 수능시험을 세 번이나 치르면서 입시 준비가 얼마나 힘든 건지 절실히 느꼈어요. 입시 실패와 성공을 모두 경험한 선배로서 수험생들에게 어려모로 도움을 주고 싶어 입학홍보대사를 하게 됐는데요, 수험생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대학에서 찬란한 20대를 시작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에 임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스카우터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시립대 홍보대사로서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석이 장학금, 학생지원제도, 캠퍼스 시설 등 서울시립대는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장 특별한 건 학교의 따뜻한 분위기예요.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분위기를 '학풍'이라고 하는데, 보통 학생들은 학교의 학풍을 닮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립대는 캠퍼스도, 교직원들도, 학생들도 너무 착하고 따뜻하답니다.

최상필 "서울시립대를 꿈꾸다, 서울시립대를 이룬다. 함께 꿈을 이루어나가는 서울시립대학교 홍보대사 이루미입니다." 이루미가 캠퍼스 투어를 시작할 때 외치는 말인데요, 꼭 서울시립대에 입학해서 바라는 꿈을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화용 스카우터 슬로건은 '서울시립대, 가능성에 날개를 달다'예요. 서울시립대 입학을 꿈꾸는 모든 수험생을 응원하며, 우리 스카우터가 합격에 날개를 달아드릴 수 있도록 입시가 끝나는 날까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스북
www.facebook.com/uosirumi
캠퍼스 투어, 봉사 활동, 홍보물 촬영 등 학교 내외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진행과 안내를 맡는 의전 활동을 한다.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이루미의 의전 활동, 학사일정, 수강신청 꿀팁, 재학생 혜택 등의 학교 소식을 알 수 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패스파인더
plus.kakao.com/home/@seoulcityuniversityofeducation
서울시립대학교패스파인더
서울시립대의 입시 제도와 전형 정보를 안내하며, 입시 박람회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입시 상담을 진행한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서울시립대학교 패스파인더'를 찾아 친구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1:1 입시 상담을 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uos_official
서울시립대 학생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카드 뉴스, 사진, 영상으로 제작해 SNS로 공유한다. 인스타그램 <uos_official> 외에도 페이스북 <서울시립대학교>, 유튜브 <배봉테레비> 채널을 통해 서울시립대 캠퍼스 생활을 엿볼 수 있다.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화학공학과

유지취업률 높은 학과 BEST 6

어느 회사든 들어가면 끝? 이제는 유지취업률이 높아야 진짜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한 것! 유지취업률이란 대학 졸업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취업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지 알아보는 취업률 지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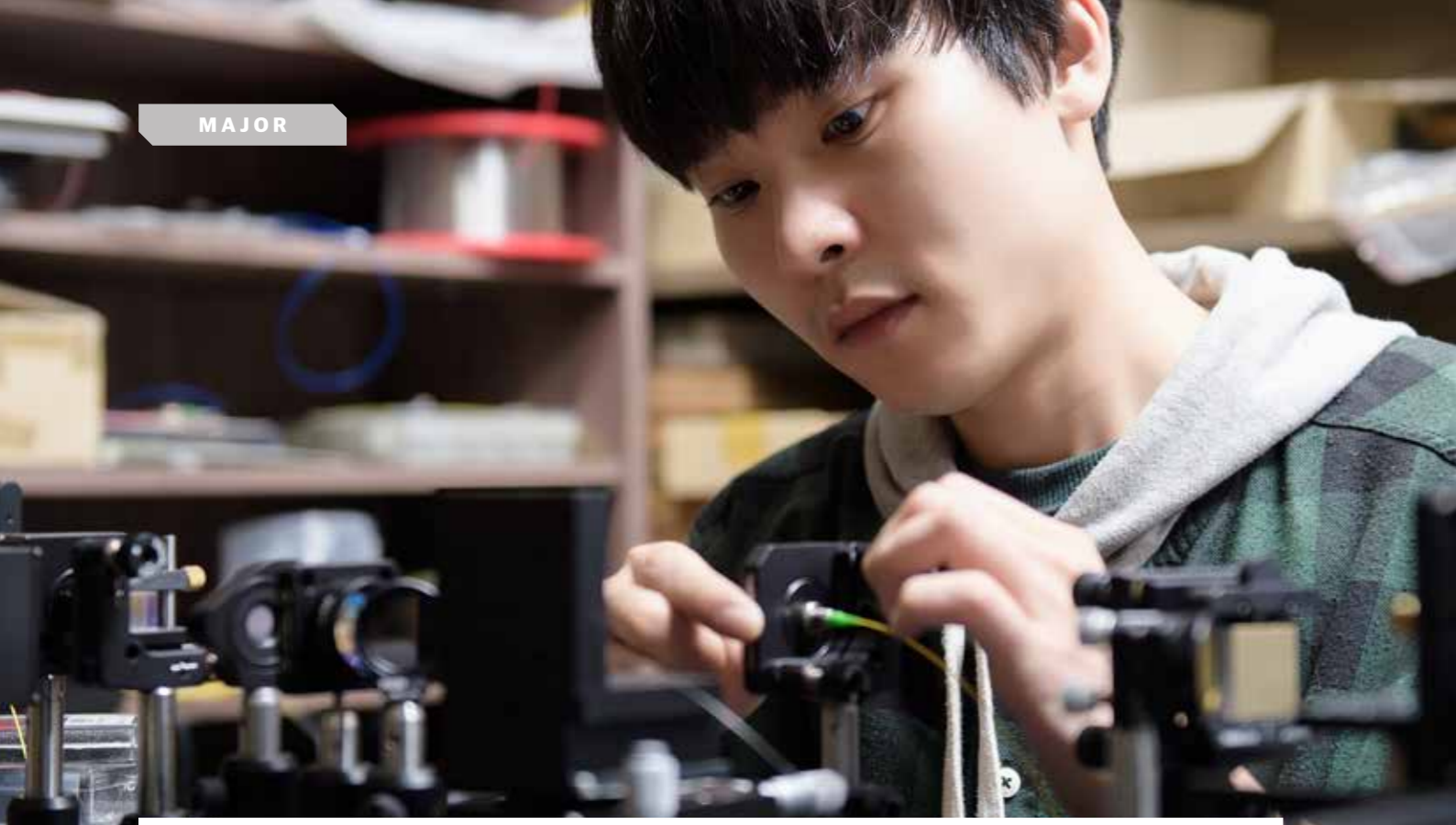
이 비율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했다는 뜻. 서울시립대학교의 다양한 전공 중 특히 유지취업률이 높은 공과대학 6개 학과·학부를 속속들이 파헤쳤다.

기계정보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토목공학과

컴퓨터과학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는 휴대폰, 노트북과 같은 디바이스를 연구하는 전자공학, 송전 및 배전 등 전기기기를 연구하는 전기공학을 융합한 전공이다. 초고주파, 광파, 반도체, 회로설계 등을 바탕으로 첨단 융복합 기술을 배워 하드웨어 제어와 설계 및 소프트웨어도 함께 익히게 된다.

화학공학과

화학공학은 인류 생활에 필요한 제반 물질을 제조·처리하는 화학 공정을 개발하고 이를 설계·운전·관리하는 기술을 다루는 학문이다. 환경오염 및 대체 에너지 등을 다루며 공정설계, 열역학, 전달현상 등에 대한 심화 교육으로 에너지, 환경,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화학 관련 전문기를 육성하고 있다.



유지취업을, 왜 높을까?

-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같은 공기업 취업을 증가
- #교과 과정에서 각종 기사자격증 대비가 가능해 자격증 취득 용이
- #방학 기간 동안 각종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현장 경험



재학생이 꼽은 주요 과목

전자전기컴퓨터설계실험 전기 회로 분석 방법을 실험으로 익히는 과목. 기본적인 RLC 회로에 대한 해석 방법을 공부하며 4주에 걸쳐 설계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전기회로 저항으로 이뤄진 회로를 연구해 회로 분석 법칙 및 정리를 배운다. 회로의 정상 상태와 과도 상태를 해석하며 주파수 변환, 미적분식을 이용한 선형 회로의 주파수와 시간 특성을 공부한다.

전자회로 다이오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및 FET에 대한 동작 특성을 살펴 본다. 능동 소자에 대해 이해하며 전자회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공부한다. 특히 다양한 다이오드 회로를 직접 살펴봄으로써 특성을 학습한다.

반도체소자 반도체 소자가 가지는 전기적 특성을 이해하고, 고체전자물리에 대한 배경 지식을 복습한다. PN접합 다이오드, MS 다이오드 등 다양한 반도체 소자의 동작 원리와 응용 방식을 익힐 수 있다.



졸업 후 진로는?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졸업생은 정보통신과 전자, 반도체 등 다양한 연구소와 산업체로 진출하게 된다. 특히 높은 수준의 학문을 습득할 수 있도록 29개 대학원 연구실을 운영하며, 학석사 연계과정을 통해 석사 학위도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다. 최근 졸업생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한국수력원자력, 두산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기업으로 진출했다.

학생회장이 들려주는 학과 이야기

정태원(18학번)

Q. 우리 학과, 이래서 특별하다!

대규모 학과라서 교류한 만큼 인맥이 넓어집니다. 학부생일 때는 물론 졸업 후에도 필드에 나간 선배들과 정보를 교환하기 좋죠. 또 해외 대학 및 기관과 학술, 인적자원을 활발히 교류하고 있으며, 우리 학부만의 세미나를 진행해 학계와 산업계 연구 동향을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Q.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에 어울리는 친구는?

생소하거나 어려운 과제를 만났을 때 좌절하지 않고 탐구정신으로 극복할 수 있는 오목이 체질 친구들에게 어울려요. 또 성격이 친철하고 정이 많아 '전전컴' 학우 150명과 친해질 수 있는 친화력까지 갖췄다면 금상첨화!

©gettyimagesbank



유지취업을, 왜 높을까?

- #기업의 수요가 많은 분야
- #물리, 화학, 생물 등 폭넓게 배울 수 있어 다양한 곳에 취업 가능
- #창업을 통해 자신을 꿈을 펼치는 경우도 많음



재학생이 꼽은 주요 과목

물리/유기화학 실험을 통해 반응이나 현상을 실제로 관찰해 유기화학물의 일반적인 성질을 이해하고 화학공학도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 과목이다.

열역학 물질의 혼합/반응/분리/정제를 통해 유용한 수단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대해 배우는 과목으로 열역학 기본 법칙, 열효과, 열의 에너지로의 전환 등 열역학에 관한 기본 개념 등을 다룬다.

공정제어 물리, 유기화학, 열역학 등의 과목을 통해 익힌 기본 지식을 토대로 실제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 관련 지식과 컨트롤러를 결정하는 방법 예측 등 공정관리에 대해 배운다.

에너지공학 유체역학, 열전달, 열역학 등을 토대로 배터리, 연료전지, 태양전지의 원리 등 에너지 이용 기술에 관한 이론 및 실제 에너지 이용 분야에 대해 학습한다.



졸업 후 진로는?

대다수의 졸업생은 정유,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외에도 제약, 의료,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 입사해 R&D, 품질관리, 생산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혹은 촉매 및 나노재료, 전기화학, 고분자 등 화학공학의 심화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원이 되는 경우도 많다.

학생회장이 들려주는 학과 이야기

이승현(15학번)

Q. 우리 학과, 이래서 특별하다!

훌륭한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자 항상 노력하신다는 점. 또, 한 학년의 인원이 50명 내외로 모집정원이 적은 편이어서 선배배 간, 동기 간 사이가 매우 돈독하다는 것도 자랑거리 중 하나예요. 예비대학, 총MT 등을 거치면서 선배배 간 친목을 다질 기회가 많고, 우리 과만의 '멘토멘터' 시스템을 통해 선배배끼리 그룹을 지어 친목도 다지고 학업에 관련된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Q. 화학공학과에 어울리는 친구는?

과학적 지식을 통해 어떤 것을 설계하고, 계산하는 것에 흥미가 있다면 4년 동안 배우는 과목들에 충분히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화학이나 과학만 생각하고 온다면 적성에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화학공학과는 수학과 과학을 기반으로 한 공학을 다루기 때문이죠.



기계정보공학과 기계정보공학과에서는 전통적인 기계공학 관련 지식에 정보공학 지식을 더해 창의적인 공학도를 양성한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등 기간산업(경제활동을 원활히 하는 데 필수적인 중요한 산업) 분야와 관련이 높은 과목을 커리큘럼으로 마련해 취업 전선에서 유리한 것은 물론 높은 유지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과는 정보재료, 에너지-환경재료, 안전재료 등 3개 분야 첨단 신소재 연구를 특성화해 산업 사회를 이끄는 엔지니어를 양성한다. 원자현미경, X-선회 절기, 반도체 공정 분석기기 등의 최첨단 실험 장비를 갖추고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유지취업률, 왜 높을까?
 #기계부터 정보까지 폭넓은 지식 함양
 #기간산업 분야 저격형 과목으로 기업에서 환영
 #공모전 준비, 소모임 활동으로 대외 수상 경력 취득

졸업 후 진로는?
 기계기술과 정보기술을 동시에 갖춘 기계정보공학과 학생은 자동차, 항공기, 에너지, 조선, 건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환영받는다. 대부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국타이어 등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전문 변리사로 활동, 또는 공기업으로 취업하는 추세다.

재학생이 꼽은 주요 과목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기계정보공학과에 입학한 1학년은 컴퓨터 기초 프로그래밍과 디지털 논리 설계 및 실습, 2학년은 전산수학과 C언어를 배운다. 3학년에는 그동안 배운 과목을 토대로 데이터를 정리해주는 다양한 자료구조를 배우고 직접 실습하게 된다.
최신기계진동학 자동차부터 선박, 비행기 등 기계에 발생하는 진동을 고려해 설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진동의 기초, 진동감쇠 시스템을 배운다.
실험계획법 어떤 실험을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지 배우는 과목이다. 실험수를 줄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MINITAB)과 연계해 프로젝트까지 진행하게 되는 실용적인 과목이다.
컴퓨터이용제도 CAD라고도 불린다.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주제 선정부터 모델링, 해석까지 직접 해야 하는 팀 프로젝트 설계 과목. 어려운 만큼 엔지니어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확실하게 쌓을 수 있다.

학생회장이 들려주는 학과 이야기 박성진(15학년)
Q. 우리 학과, 이래서 특별하다!
 대표적인 소모임이 매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보는 '풀 액셀(Full Accel)'은 학과에서 배운 역학 지식과 설계 소프트웨어로 실제 차를 만들고 주행까지 하게 되죠. 임베디드 소모임은 라즈베리파이와 아두이노 등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와 드론을 만드는 소모임이고요.
Q. 기계정보공학과에 어울리는 친구는?
 물리와 수학과 친하게 지낸 사람들! 학교생활 4년 내내 물리, 수학을 떼어놓을 수 없어요. 또 매 학기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 친구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자신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우리 학과에서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유지취업률, 왜 높을까?
 #공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과학을 융합한 기술 학습
 #창의 공학 설계 과목을 통해 공학적 사고 능력 증진
 #여러 공학 분야의 학문을 학습해 다양한 분야로 취업

졸업 후 진로는?
 산업기술 연구 영역이 나노, 우주 분야로 확장하면서 신소재공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신소재공학과는 금속, 세라믹,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연구하므로 취업할 수 있는 곳이 폭넓다. 철강, 세라믹, 에너지 등 신소재를 다루는 기업 및 연구소에 진출하게 된다.

재학생이 꼽은 주요 과목
재료열역학 반응의 자발성에 대해 공부하는 과목으로, 열역학 법칙을 기초로 공부하며 열역학을 재료공학적 관점으로 응용하는 기술을 배운다.
첨단신소재공학 현대 산업에 필요한 소재들에 대해 배우며 신소재 개발이 중요한 이유를 이해한다. 또 재료과학의 기본 이론을 비롯해 첨단 신소재의 원리와 제조 방법, 응용 분야에 관해 학습한다.
재료과학 재료의 기본 요소가 되는 원자의 구조와 결합 이론을 배운다. 결정의 완전·불완전 구조, 상평형 등의 기본 개념과 기계적 성질에 대해 익힌다. 전자기적 성질, 광학적 성질에 대한 기초 개념도 공부한다.
무기재료공학 세라믹 공학 이론과 실제 응용하는 기술을 이해한다. 기초 이론을 학습한 후, 세라믹 소재의 구조와 특성, 공정 기술에 대해 익힌다.

학생회장이 들려주는 학과 이야기 최민길(15학년)
Q. 우리 학과, 이래서 특별하다!
 매년 <신소재의 밤> 행사를 진행해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학과 선배님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져요. 선배님들로부터 취업 성공 사례와 현장 실무 경험담을 접할 수 있어 실제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되죠. 또 가을에 소모임 공연을 진행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 학업 스트레스를 즐겁게 풀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요.
Q. 신소재공학과에 어울리는 친구는?
 물리와 화학을 기반으로 한 과목이 많아 과학을 좋아하면 전공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혹시 과학이 어려워도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학과 교육과정을 따라가는 데는 열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1학년 때 기초과학에 대해 공부할 기회가 주어지니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어요.



토목공학과

토목공학과는 우리 생활에서 가까이 접하는 도로, 하천, 교량, 항만, 댐, 상하수도, 터널 등의 사회 기반 시설을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하는 학문이다. 토목 구조물 및 도시 관련 시설물 설계 시 구조적 특성을 연구하고 안정적인 구조물 구성 및 방해 물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기술을 공부한다.



컴퓨터과학부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실생활에서 컴퓨터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룬다. 또한 인공지능, 데이터마이닝 등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학습하고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컴퓨터과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지취업을, 왜 높을까?

- #현대 공학의 모체로 토목공학이 활용되는 영역이 다양
- #컴퓨터 시뮬레이션, 현장견학 등의 실험 실습으로 종합계획 능력 함양
- #실무 적응 능력을 키우는 공학인증교육 실시



졸업 후 진로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과 기반을 만드는 학문으로, 각종 시설물 건설과 관련된 분야에 진출한다. LH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의 공기업을 비롯해 현대건설, 대림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등 건설사 및 시공사에 종사한다.



재학생이 꼽은 주요 과목

토목제도 및 CAD 기본적인 토목 구조물을 이해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도면화하는 연습을 한다. 보다 복잡한 토목설계 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CAD 기법을 실습한다.

구조역학 구조물의 처짐과 부정정 구조물(외력에 의해 본래의 형태가 변형 또는 움직이는 구조물)의 원인 및 해결법을 다룬다. 모멘트 면적법, 가상 하중법, 요각법 등의 구조역학 기술을 배운다.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의 재료와 역학적 성질을 배우고, 구조물의 설계 방법을 익힌다. 구조물 중 가장 간단한 구조물인 '구형단면 철근 콘크리트 단순보'에 대한 설계법을 공부하기도 한다.

측량학 지형지물의 상호관계와 위치를 측정하고, 거리, 방향, 높이에 관한 원리를 배워 토목 사업 목적에 따른 좌표 결정 능력을 키운다.



학생회장이 들려주는 학과 이야기

최영규(15학번)

Q. 우리 학과, 이래서 특별하다!

학년과 학번, 성별과 졸업 여부에 관계없이 학과생 모두가 단합하는 활기찬 분위기가 조성돼 학업 및 취업 등 다양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어요. 매년 2학기 때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해 학과생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를 갖고, 졸업한 선배들과도 만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며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어요.

Q. 토목공학과에 어울리는 친구는?

각종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부를 하므로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지녔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것을 접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도 필요하고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다리, 도로 등의 시설과 구조물을 관찰하는 호기심도 있다면 금상첨화죠. 수학, 물리학 등 기초과학 이해력이 뛰어나면 전공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유지취업을, 왜 높을까?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아우르는 교육과정
- #보안, 임베디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 가능
- #자신에게 맞는 분야에 취업해 높은 만족도를 자랑



재학생이 꼽은 주요 과목

C언어 및 실습 1학년 때 수강하는 과목으로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해 배울 수 있어 공학적 사고를 높여준다.

컴퓨터알고리즘 알고리즘을 직접 설계해 과제를 해결하고, 개발된 알고리즘을 분석해보는 과목이다.

운영체제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장치를 구동할 때 어떤 순서로 동작들이 수행되는지 배우는 과목이다.

소프트웨어공학 3·4학년 때 수강하는 과목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 이해하고, 보다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법을 배운다.



졸업 후 진로는?

학과에서 배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웹이나 데이터베이스 분야로 진출하거나 보안이나 임베디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로 진출 가능하다. 삼성이나 SK, LG 등의 기업이나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이 통신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 기업의 연구원 및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회장이 들려주는 학과 이야기

김승빈(14학번)

Q. 우리 학과, 이래서 특별하다!

다른 학과와 달리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대회가 있다는 것! 우리 학과에서 가장 오래된 '알림'이라는 알고리즘 소모임에서 개최하는 알고리즘 대회인데, 소모임 인원과 교수님이 직접 문제를 만들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대회를 열어요. 1등에게는 상금과 총장상이 주어집니다.

Q. 컴퓨터과학부에 어울리는 친구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나 연구나 알지 못했던 것을 배우는 것에 흥미가 많은 사람에게 우리 학과를 추천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이전에 컴퓨터에 대해 배운 사람이라면 우리 학과에서 어렵지 않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대학교에 와서 컴퓨터 분야 중 한 가지 분야에서는 으뜸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온다면 더욱 좋겠죠?



도전해봐! 네 꿈을 펼쳐봐! 서울시립대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누구나 글로벌 시대를 노래하지만 모두가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다. 세계무대를 향한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원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법. 당신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만드는 서울시립대의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주목해보자.

재학생 해외 파견 정규프로그램 연간 선발 일정

1월	2학기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자 선발	6월	2학기 뉴욕 글로벌 인턴십 참가자 선발
2월	2학기 파견 복수학위 프로그램 참가자 선발	7월	1학기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자 선발
3월 초	토플 해외유학준비반 참가자 선발	8월	1학기 파견 복수학위 프로그램 참가자 선발
3월 중	어름방학 해외단기파견 프로그램 참가자 선발	9월	토플 해외유학준비반 참가자 선발
5월	2학기 글로벌 무역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 선발	10월~11월	겨울방학 해외단기파견 프로그램 참가자 선발

※연간 일정 및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세계로 뻗는 시대의 꿈

재학생 만족도 90.7%라는 수치가 말해주듯 서울시립대의 교육 인프라는 정평이 나 있다. 국공립대학의 합리적인 등록금, 다양한 장학 혜택, 학과별 경계를 과감히 허문 전공제도 등 시대생들이 꿈는 서울시립대의 강점은 무궁무진하다. 그중에서도 해외 유수의 대학과 기업, 기관과 연계한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모든 재학생에게 세계를 품을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특별한 제도이다. 전 세계 57개국 304개교와 양자 간 교류협정을 체결했으며 해외 파견하는 재학생 수가 연간 500명에 이른다(2020.1학기 기준). 대학의 국제화 순위가 아무리 높다한들 학생들이 그 혜택을 직접 체험할 수 없다면 허울일 뿐이다. 서울시립대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해외 유학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에서 공부하기? 어렵지 않아요!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교환학생제도이다. 현재 서울시립대에서 운영하는 교환학생제도는 일반 교환학생과 ISEP(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Program) 프로그램, SAF(Study Abroad Foundation) 프로그램 3가지이다. 먼저 일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서울시립대와 학생교류협정이 체결된 외국대학에 1:1 상호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기간은 1학기 또는 1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매년 1월과 7월에 선발하며 1학기 이상을 이수한 재학 및 휴학 중인 학생에게 기회가 주어지며, 평균 평점(GPA) 3.0이상 등 재학생 파견 자격사유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선발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을 치르게 되며 외국



어 면접으로 진행된다. 또 기업으로부터 지원받는 외부 장학금, 1인당 4000유로의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ASEM-DUO, 일본 문부성에서 지급하는 JASSO 장학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립대는 지난 2015년부터 ISEP에 가입, 국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희망자는 선발과정을 거쳐 전 세계 약 380개의 ISEP 회원 대학에서 유학할 수 있다. ISEP 홈페이지에서 1-10지망까지의 대학을 신청하면, ISEP 본부에서 파견 대학 배정, ISEP 회원 대학에서 최종 합격 여부 결정 및 ISEP 본부에서 최종 입학허가서 발급 순으로 이루어진다.

비영리 공공교육재단인 SAF 프로그램은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등 70여 개 우수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수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역시 매년 2회에 걸쳐 모집한다. 기본 자격조건은 일반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동일하며, 2단계의 선발과정을 거친다. 1차는 서울시립대에서, 2차는 지원하는 SAF 회원 대학에서 최종 선발하게 된다.

실무능력, 글로벌 인턴십으로 업그레이드

외국에서의 공부뿐 아니라 직장체험까지 한다면 훨씬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공부에서 실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립대에서는 해외 소재 기관에서 실무교육과 함께 현지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도 마련해놓았다. 먼저 뉴욕 글로벌 인턴십은 무급 인턴십과 어학연수를 겸하며 학기당 10명을 선발, 총 16주 동안 미국 CUNY(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소속 라과디아대학 내 기관 및 협력기관 11곳에서 인턴십을 쌓게 된다. 또 무역협회 글로벌 무역 인턴십은 한국무역협회와 맺은 산학협약에 의거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학기당 4~5명, 6개월의 파견기간 동안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소재한 한국기업에서 전일제 인턴으로 근무한다. 장학금도 지원되는데 뉴욕 글로벌 인턴십은 400만원, 무역협회 글로벌 인턴십은 미주, 유럽 UAE 지역은 400만원, 아시아와 기타 지역은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글로벌 인턴십 외에도 개발도상국 소재 공공기관 주재원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도 눈여겨볼 국제화 프로그램이다.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연계해 진행되는 방식으로 해당 국가의 언어, 경제, 정치, 문화 관련 수업과 인턴십을

거친다. 현재 연수기관은 베트남에 마련되어 있으며, UOS 글로벌 캠퍼스 설립과 맞물려 대학의 국제화 역량 지수를 높이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의 외국인 친구를 소개합니다!

해외유학과 인턴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춰 경험과 인맥을 쌓을 길도 있다. SEOULMATE는 서울시립대에 입학 또는 교환학생 자격으로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의 한국 생활을 돕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학생경력활동 증명서 발급과 국제화 프로그램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또 여름방학 중 교환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국제어른학교 Peer Advocate, 한국어학당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과 1:1, 또는 1:2 매칭되어 10주간 문화와 언어를 교류하는 UOS Buddy 등도 시대 생활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데 톡톡히 도움을 주고 있다.

Mini Interview

“세계라는 넓은 무대에서 나의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류민열(통계학과 14학번)



Q |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신청한 계기나 이유가 있나요?

전 세계의 사람들과 소통해보고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단기간 여행으로는 제 바람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마침 서울시립대와 캐나다 세인트 메리 대학이 교환학생 협정이 체결되어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Q | 한국의 학교와 다른 점, 힘든 점, 기대와는 달랐던 점이 있다면요?

남녀 기숙사가 나누어져 있지 않다는 점, 처음 보는 사람이어도 눈만 마주치면 밝은 표정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점이 생소했어요. 무엇보다 영어로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듣는 수업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더군요. 하지만 해외 유학 또는 교환학생을 위한 사전 적응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어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Q | 유학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나요?

두 대학 간 교류협정의 체결로 캐나다 대학의 등록금이 아니라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을 내기 때문에 타 학교 학생들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다녀올 수 있었어요. 그의 항공료와 체류비는 반년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비용으로 충당했고, 부족한 부분은 부모님께서 조금 도와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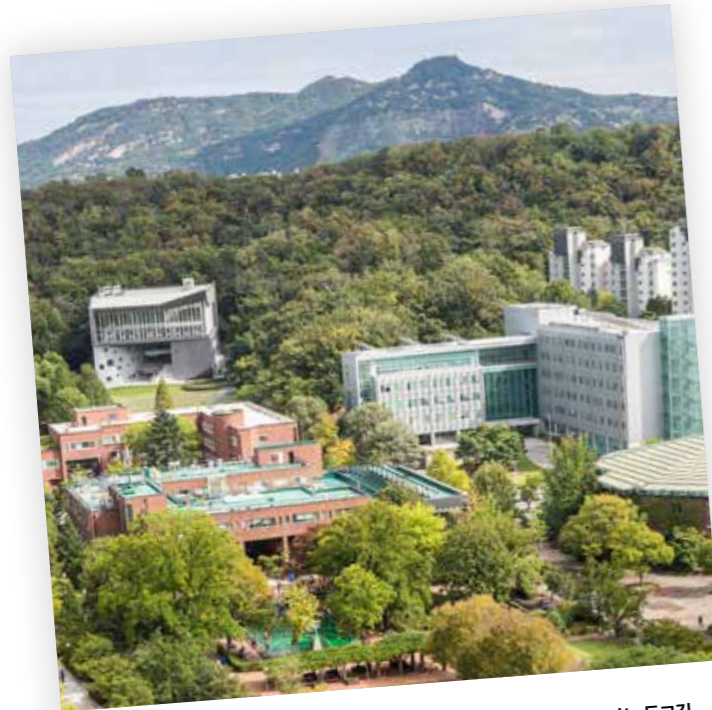
Q | 교환학생으로 선정되는 과정이 어렵지는 않았나요?

학기 중에 토익 점수를 획득하고 방학 때 학업계획서,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재학생 대비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첫 지원 시 10개 내외의 학교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발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Q | 어떤 학생에게 교환학생을 경험해보라 권하고 싶나요? 해외에서 한 학기 또는 1년을 산다는 건 평생에 다시 하기 힘든 기회죠. 다른 나라의 교육과 문화를 경험해 보고 싶은 학생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캠퍼스 사계

사계절 내내 각양각색의 매력으로 아름다운 서울시립대. 지금부터 우리 학교의 사계절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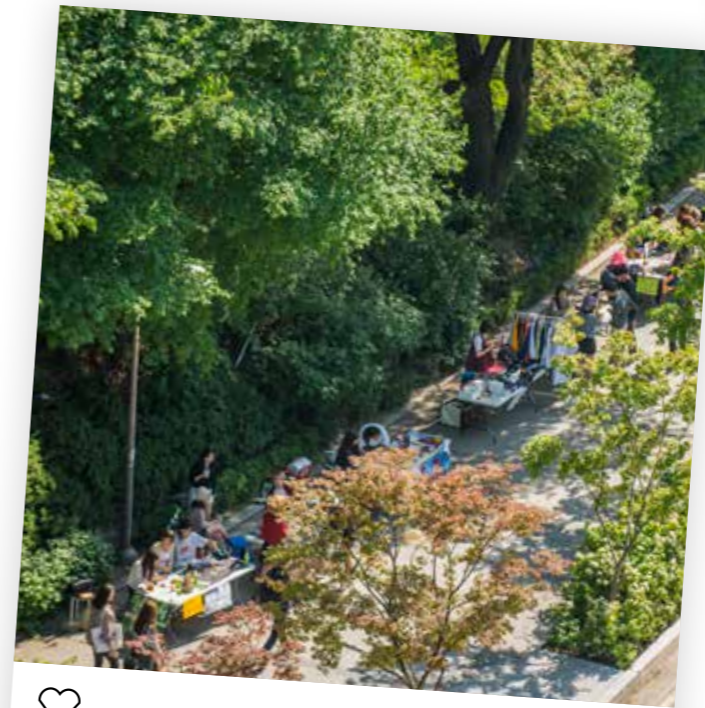


#봄
서울시립대가
가장 설레는 시간!
새 학기의
시작으로 신입생,
재학생 모두
두근두근하는 때.

♡ @신나는 등교길
오르막을 찾기 힘든 캠퍼스 4년 내내 대학 생활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캠퍼스. 예쁜 캠퍼스는 캠퍼스 라이프의 질을 높여주지. 서울시립대는 서울에 있는 학교 중 몇 안 되는 평지에 있는 학교인데다, 조경도 잘돼 있어 사시사철 다른 매력을 뽐내네. 역시 서울시립대에 활영을 자주 오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
#공원 같은 #캠퍼스



♡ @대강당
나도 이제 시대생 1918년 5월 1일 개교해 유수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곳은 바로 서울시립대. 고된 수험생활을 거쳐 우리 학교의 일원이 되는 감격스러운 순간. 애교심 뽐내는 입학식으로 더욱 벅차오르는 기분!
#시대에서 #꽃길만 #걸을 거야



♡ @서울시립대 중앙로
축제의 계절이 왔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바야흐로 축제 시즌 교내의 동이리며 학과가 축제 준비로 들뜨는 시기야.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로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 정도. 공강 시간에 부스에서 사 먹는 간식거리도 빼놓을 수 없는 축제의 묘미!
#동기들이 #모여라 #놀자



♡ @해외 곳곳
뜻깊은 방학을 만들어줄 해외봉사단 2달이나 되는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고 싶다면 해외봉사단에 지원해보기! 서울시립대에서는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네팔 등 다양한 국가로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고 있어. 외국어를 잘해야 하나? 노노~ 대신 순수한 봉사 정신과 성실성, 책임감은 필수!
#알찬 방학 #만들 거야



♡ @서울시립대 정문
여기부터가 서울시립대 서울시립대의 입구이자 우리 학교의 상징인 이 조형물. 2010년 두터운 철문을 걷어내고 산뜻하게 새 단장했지.
#정문인 듯 정문 아닌 정문 #오픈 캠퍼스



♡ @꽃잎 흩날리는 캠퍼스
봄과 함께 오는 중간고사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고 했던가. 만개하는 꽃들을 바라보며 공부만 해야 한다니! 하지만 중간고사 대신 꽃놀이를 택했다간 떨어지는 게 벚꽃잎만은 아닐지도...
#이런 날씨에 #시험이라니 #가혹해

#여름
꽃샘추위가 끝나고,
한껏 푸르러진
캠퍼스.
중간고사도 끝났겠다,
축제로 흥겨움을 더하는 계절!



♡ @중앙도서관
계절학기, 꼭 에이블 받을거야 1학기에 너무 열심히 놀았나...? 재수강으로 계절 학기를 피할 수 없게 돼버리고 마는데... 이번만큼은 씨플러스를 면하겠어. 계절 학기야 내 학점을 올려줘!
#씨플은 아니 되오 #제발



♡ @생생한 축제 현장
축제의 꽃, 공연! 올해 우리 학교에 오는 연예인은 누구일까?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왔다면 만나 제치고 달려가야지! 자, 우리 학교에서만 즐길 수 있는 콘서트를 즐기러 가볼까?
#신나는 곡들로 #부탁해요



♡ @단풍나무 옆
가을 감성 터지는 캠퍼스
 가을이 되면 울긋불긋한 단풍과 은행을 볼 수 있는 서울시립대. 단풍놀이를 따로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화려한 캠퍼스를 자랑하지. 오히려 외부 사람들이 단풍놀이를 하러 오기도 한다고. #옆구리가 #시리는 계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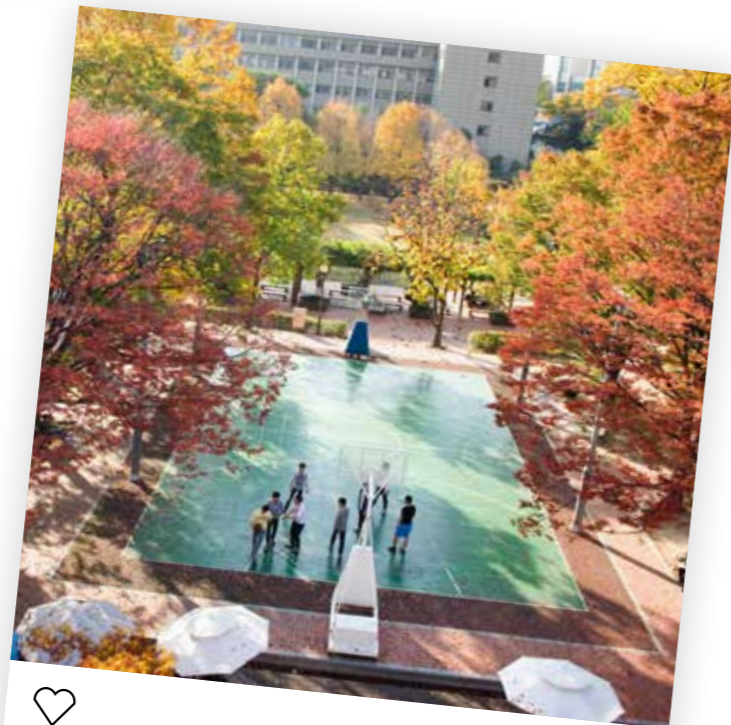


♡ @승리의 현장
역동적인 역동전
 역동전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경희대 3개 대학이 모여 축구, 축구, 테니스, 농구, e스포츠 총 5가지 경기를 펼치는 행사야. 올해 처음 개최됐지만, 누적 관중이 14000여 명에 달했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 신나는 9월을 만들어준 역동전, 앞으로도 계속되길! #하이라이트는 #우리학교의 #남자축구 #우승

#가을
 찌는듯한 무더위가 지나고 나면 선선하게 불어오는 가을바람. 바로 2학기 개강이 코앞이라는 것!



♡ @동아리 홍보부스
나도 해볼래, 동아리!
 1학기 때에는 학교에 적응하라, 동기들과 친목 다지라 정신이 없었지만 2학기 때에는 동아리 활동을 시작해보겠어! 1학기 때 모집을 놓쳤다고? 전혀 아쉬워할 것 없어. 2학기 때 모집하는 동아리도 꽤 많거든. #대학생이라면 #동아리 하나쯤은 #꼭



♡ @울긋불긋한 서울시립대
정신 차려보니 개강
 여름방학 동안 해외 봉사를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집에서 TV만 보든 개강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푸르던 캠퍼스도 어언 완연한 가을이네. 2학기엔 열심히 해서 장학금 탈 거야! #개강할 때마다 하는 #다짐



♡ @겨울왕국
눈 오는 캠퍼스
 2학기도 가고 어느덧 한 해가 갔음을 알려주는 눈 내린 캠퍼스. 새내기들은 한내기가 될 준비를 하고, 한내기는 슬슬 졸업에 가까운 학년이 될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기지. #졸업이 코앞? #휴학할까



♡ @합격의 길
찬 바람 불면 입시철
 작년 가을, 나도 떨리는 마음으로 수시 시험을 치러 왔더랬지... 서울시립대 야구정퍼를 입고 여유롭게 캠퍼스를 활보하는 선배들이 어찌나 부럽던지. 수험생을 보니 감회가 새로운걸. 수험생 여러분 잘될 거예요! 내년엔 캠퍼스에서 꼭 만나요! 밤 사 줄게요! #괜히 어린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 @졸업 작품 전시장
졸업을 준비하는 계절
 입학하는 사람이 있으면 떠나는 사람도 있는 것. 겨울엔 졸업을 앞둔 선배들의 졸업 전시회를 곳곳에서 볼 수 있어. 멋진 사회인이 될 선배들 응원합니다! #나도 언젠가 #떠나겠지 #선배님들 안녕

서울시립대 '소문' 진실 혹은 거짓

서울시립대에는 캠퍼스 커플이 많다는데?
 제일 유명한 학과는 도시과학대학이라며? 서울시립대를 둘러싼 무성한 소문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재학생 11인의 입을 통해 소문의 진실을 파헤쳐봤다.

서울시립대의 자랑은 도시과학대학이다

YES ·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은 특수 단과대학으로 학교의 지원이 많다. 해외 탐방 기회 등 1인당 500만 원 장학금이 지원된다. 특히 교통공학과는 타 대학에는 없는 학과로 서울시립대의 강점이다.
 · 맞다. 도시과학대 소속 학생만 아는 건가?(웃음)
 · 그렇다. 학생들 수준도 높고 졸업 후 전망도 밝다. 서울시청 인턴 등 서울시와 연계된 프로그램도 많아 '시립대'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서울시립대에서 연애를 못 하면 바보다

YES · 그렇다. 나는 바보다. 옆구리가 시립대...(머쓱)
 · 그렇긴 하지만 성별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다. 서울시립대가 남학우들의 비율이 높아 남학우는 여학우에 비해 연애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내 주위만 봐도...
 · 서울시립대에서는 연애를 못 하면 바보일 뿐만 아니라 겸상도 안 시켜준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
 · 바보다. 하지만 연애를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빈익빈 부익부... 하는 사람만 계속한다.

재학생 대부분이 장학금을 받고 다닌다

YES · 지금까지 내가 받은 장학금 및 각종 프로그램 지원금을 합쳐보면 이미 납부해야 할 등록금을 넘어섰다. 돈을 내고 학교에 다녀도 모자랄 판에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는 인재들에게는 아낌없이 투자해주는 서울시립대!
 · 서울시립대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장학금이 36가지나 된다. 장학금 수혜율도 71% 정도로 10명 중 7명이 장학금을 받는데, 학교 장학금 홈페이지를 통해 자기에게 맞는 장학금 제도를 찾아보면 된다. '졸업 때까지 장학금을 한 번도 못 받으면 바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대부분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시립대 근처에는 놀 거리가 많다

NO · 그래서 서울시립대생들은 주로 경희대나 외대가 있는 회기로 놀러간다.
 · 그렇다. 서울시립대에는 놀 곳이 없다. 반경 1km 이내에 별다방 하나 없을 정도
 · SNS에 올라오는 아기자기한 식당이나 카페는 많지 않다. 대신 서울시립대 근처에는 가격이 저렴하고 푸근한 맛집이 많아서 든든한 식사는 맘껏 할 수 있다.

캠퍼스 전체가 공부하는 분위기다

YES · 시험기간이 아닌데도 도서관 열람실에 늘 내 자리는 없다. 최근 도서관 개편으로 인해 시설이 업그레이드돼서 그런가?
 · 맞다. 공무원, 각종 전자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 실제로 세무사 부동의 1위를 보이고, 수석이나 최연소로 합격하는 학생도 많다. 회계사, 행정고시 등 각종 시험에서도 항상 학교별 TOP10 안에서 서울시립대를 찾을 수 있을 정도.

서울시립대 캠퍼스는 가을에 제일 예쁘다

NO · 무슨 소리! 사계절 다 예쁘다. 봄엔 벚꽃이 만발한 나무가 많고 법학관 가는 길엔 개나리가 예쁘게 핀 골목이 있어 어디서 사진을 찍든 다 아름답다. 조경도 잘 되어 있어 여름엔 수목이 우거진다. 가을엔 중앙로에 낙엽 떨어진 모습이 인상적인데 나무들이 대체로 높아서 강의실 안에서 창문을 바라보면 낙엽 떨어지는 광경을 감상할 수 있다. 겨울엔 옥상정원에서 눈 내리는 모습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첫눈 오는 날엔 옥상정원에 커플이 많으니 솔로는 주의!
 · 우리 학교는 가을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계절이 뽀뽀하는 캠퍼스를 자랑한다. 봄에는 항상 벚꽃이 휘날리며 여름에는 초록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맑은 하늘과 함께 조화로운 단풍이 들며 겨울에 눈이 수북이 쌓인 캠퍼스를 보면 엄청난 감성도 생겨난다. 우리 학교에 드라마나 영화, 광고를 자주 찍으러 오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서울시립대는 고시 명문 대학이다

YES · 그렇다. 특히 문과 계열은 공무원 시험 등 다양한 고시를 많이 본다 소문이 있다.
 · 맞다. 실제로 캠퍼스를 돌아다니다보면 회계사, 세무사 등에 합격했다는 플래카드를 많이 볼 수 있다. 졸업생 선배들 중에도 공직자나 대기업 쪽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도서관에서 서울 시민을 만날 수 있다

YES · 새로 생긴 100주년 기념관 도서관에 가면 볼 수 있다. 대신 외부인은 카드를 발급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다.
 · 그렇다. 하지만 시험 기간에는 재학생들의 자리마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맞다. 하지만 시험 기간 열람실 좌석 독점은 안 돼요~♥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서울학을 공부할 수 있다

YES · 서울시립대 안에는 서울학 연구소가 있다. 전공과 관계없이 신청하면 배울 수 있는 과정이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UOS 패스파인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블로그를 활용하여 1:1 상담 등 온라인 입시정보를 제공한다.

UOS 찾아가는 입학설명회 및 상담회
전국 고교를 방문해 서울시립대 입학설명회 및 상담회를 진행한다.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 주관 박람회와 연계해서 실시한다.

교사 방문 간담회
진학담당 교사와 진학관련 정보를 교류한다.



UOS 교사대상 학생부종합연수
학생부종합전형 우수사례발표, 교사대상 모의서류평가, 고교-대학 간의 평가기준 및 평가요소를 공유한다.

UOS 초청 입학설명회
대입 정보 소외지역을 포함하여 서울시립대 방문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UOS 초청 입학설명회를 진행한다.

UOS 학부모 초청 간담회
지역을 방문하여 학부모와 대학 간의 입학전형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전형별 이해도 향상 등 의사소통을 강화한다.

UOS 모의논술
2021학년도 수시 논술전형 대비 모의 논술 기회를 제공한다.

UOS 모교방문단
서울시립대 재학생이 본인이 졸업한 모교를 방문해 대학을 홍보하고 입시 전형을 안내한다.



1:1 맞춤형 방문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상담 신청 후 궁금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학사정관과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UOS 정보 소외지역 모의전형
모의전형을 통한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및 피드백을 제공하는 행사다.



UOS 시민청 입시카페
서울 시청 시민청에서 간담회와 상담소가 열린다.

UOS 정보소외지역 진로전공캠프
지역적 소외로 진로 및 전공체험 기회가 부족한 읍면지역 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캠프 프로그램이다.



대교협 수시 대학입학 정보 박람회

UOS 학생부종합전형 토크콘서트
'학종'을 주제로 입학사정관과 수험생이 함께 심층 대화를 나누는 자리다.

입시상담 멘토링 COM.PATH
입시상담 멘토링을 통해 서울시립대에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에게 실질적인 입학 및 진로정보를 제공한다.

대교협 정시 대학입학 정보박람회

UOS 중학생 대상 학습지원
진로체험 활동 지원을 통해 중학생들이 진로설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눈에 보는 UOS 연간 프로그램

서울시립대는 매년 진로·진학 안내와 함께 캠퍼스를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입학처에서 공개하는 연간 캘린더를 통해 놓치지 말아야 할 프로그램을 확인해보자.

UOS 교사대상 사례 공유 컨퍼런스
서울시립대 학생부종합전형 운영결과를 공유해 진학지도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교 진로·진학지도 및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행사다.

UOS OPEN LAB
서울시립대 학부와 운영 연구실 방문 체험 프로그램이다. 고교생의 진로와 진학 목표 설정을 위한 대학 탐방 및 전공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UOS 중학생 대상 진로·진학 박람회
중학생들에게 서울시립대 전공체험의 기회와 함께 진로 탐색 정보를 제공한다.



※상기 일정은 2019년 기준이며 2020년에는 일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admission.uos.ac.kr>

서울시립대학교에 놀러와!

입시 정보가 궁금하면 클릭!



입학처 홈페이지

<https://admission.uos.ac.kr>



1:1 입시 상담(패스파인더)

plus.kakao.com/home/@서울시립대학교패스파인더

학교 소식, 캠퍼스 생활이 궁금하면 클릭!



홍보대사 이루미

www.facebook.com/uosirumi



SNS홍보기자단

www.instagram.com/uos_official_



공식 유튜브

www.youtube.com/user/universityofseoul